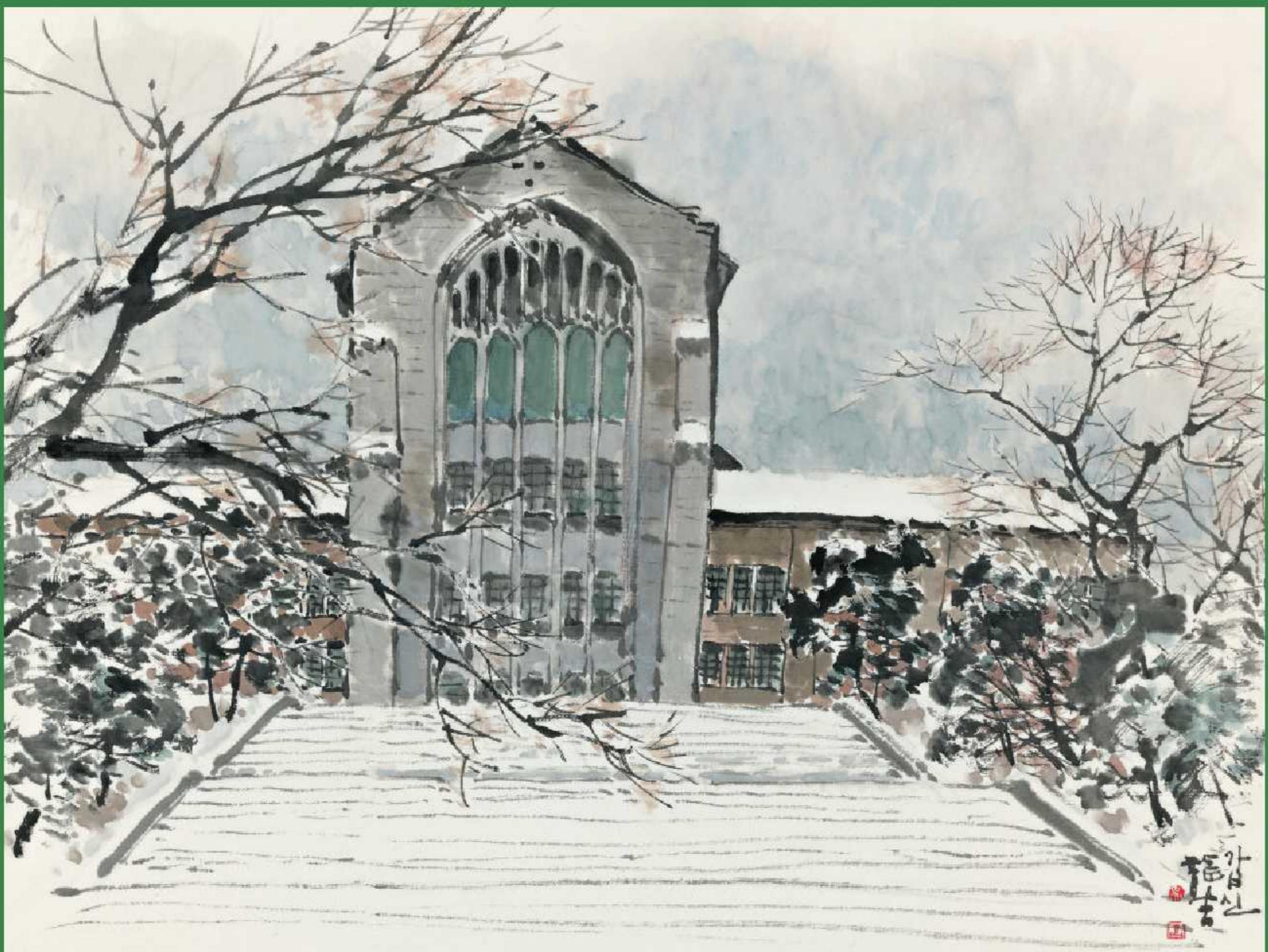


이화동창

2015 이화인의 밤 / 특별 인터뷰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오주엽 동창 / 이화가족 성탄예배





02



06



10



12

이화동창

2015년 겨울 제141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 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48x64cm, 2004)

02 2015 이화인의 밤

06 특별 인터뷰

10 2015 이화가족 성탄예배

12 2015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16 행운 선물 목록

17 축하합니다

20 나의 스승 나의 제자

24 총동창회 소식

27 선교부 소식

28 이화의 이곳저곳

32 자랑스런 이화의 얼굴

36 모교 소식

39 박물관 소식

40 만나고 싶었습니다

43 대학(원) 소식

47 과(학부) 소식

53 지회 소식

59 동창 근황

67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68 연회비 납부자 명단

1200여 명 동창 참석,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도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오주엽 동창

'다 비우시고 없이 계시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돌아보라

애틀랜타에서 열린 10월의 멋진 밤

'이화인의 밤' 행사를 위해 경품을 기증해 주신 분

문화 동창 외 14인

2015년 각종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동창들

이어령 국문과 명예교수와 제자들

이사장 초청 총동창회 후원이사 오찬 외

34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와 이화가족 성탄예배

새천년을 열어갈 빛과 생명과 부활의 대학교회

IBK 기업은행 개인고객본부 부행장 김성미 동창

최경희 총장 하버드 대 특강 외

한국박물관협회 '올해의 우수활동상' 수상

주 알제리대사관 공사참사관 유복렬 동창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송은미(유교 85,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신방 69)

윤혜숙(신방 86)

전세영(사학 94)

김민희(국문 9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5년 겨울 141호

발행 2016년 1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엘앤피 | 값 1,000원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6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2015 이화인의 밤

“이화 DNA를 확인하고 혁신과 발전의 파도를 만들자”

-1200여 명 동창 참석,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화인의 큰 잔치 ‘2015 이화인의 밤’ 행사가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총동창회가 매년 주최하는 ‘이화인의 밤’은 20만 이화 동창 DNA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모교와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제11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이 있는 1부와 2부 만찬, 3부 작은 음악회, 4부 행운 잔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준비된 1200여 석의 좌석이 조기 매진되는 등 모교에 대한 동창들의 뜨거운 관심과 결속력을 보여준

1.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2. 윤후정 명예총장 3.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4. 신인령 전 총장 5. 이배용 전 총장 6. 김선옥 전 총장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최경희 총장, 신인령 전 총장, 이배용 전 총장, 김선옥 전 총장 등 내빈을 비롯한 120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아름다운 이화인’에 오주엽 동창 선정돼

1부 행사는 김광옥(식영 75) 총동창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김미순(기독 75)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단상에 오른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교는 각종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동창들도 후배들의 성공적 사회 진출과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어서 1부 행사는 하이라이트인 제11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대형 스크린에 2015년 수상자인 폐루 ‘선한 사마리아인 진료센터’ 원장 오주엽(의학 81) 동창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주요 업적과 균황이 소개되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오주엽 동창은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부산 일신기독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남편 김명수 목사와 함께 남미 칠레와 폐루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26년간 의료선교에 헌신해 오고 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상패와 상금 1,000만 원, 손성혜 한복상품권을 전달하자 자리를 메운 동창들이 뜨거운 박수로 오 동창을 격려했다.

오 동창은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기독교인이자 선교사로서 이화를 세운 선교사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많은 이화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화의 정신을 빛내주기를 기도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총동창회가 제정, 매해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하는 상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실천한 동창에게 수여하고 있다.

모교 발전기금 8억 전달

시상식이 끝난 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최경희 총장에게 모교 발전기금 8억 원을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매년 ‘이화인의 밤’ 행사를 통해 1년간 이화 동창들이 정성으로 모은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특별히 2016년 완공 예정인 신축 기숙사 건립기금으로 8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전달하여 장내를 메운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최경희 총장은 발전기금을 전달한



제11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수상자 오주엽 동창(왼쪽)에게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왼쪽)이 최경희 총장에게 모교발전기금 8억 원을 전달했다

La Traviata

총동창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 1년간 이화를 찾은 세계 석학 및 리더들의 방문 소식과 모교가 이루어낸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최 총장은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선정,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참여대학 선정, 라이덴 세계대학평가 3년 연속 1위, 세계적 유전체 연구소 미국 잭슨랩과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모교가 거둔 다양한 성과를 알렸다. 이어 최 총장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원동력은 강력한 여성 네트워크에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늘 이화 동창이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에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혁신과 발전의 파도(EWHA WAVE)를 만들어 이화의 뛰어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동창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끊임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페라와 뮤지컬 메들리로 이어진 흥겨운 음악회

2부 만찬은 안영호(중문 85) 서기의 활기찬 구호로 시작되었으며 장명수 이사장의 건배 제의로 무르익었다.

만찬 후에는 3부 작은 음악회가 임진희(작곡 01)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작은 음악회는 김자경오페라단 소속 남녀 성악가들의 오페라와 뮤지컬, 가곡 메들리로 꾸며졌으며 친숙하고 흥겨운 멜로디가 이어질 때마다 참석자들은 노래를 따라하거나 박수를 치며 공연을 마음껏 즐겼다. 1부는 <여자의 마음>과 <줄리엣의 왈츠>, <사랑의 묘약> 그리고 <Quando me'm vo>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의 오페라 메들리, 2부는 <투나잇> <오페라의 유령> 등 뮤지컬과 <축배의 노래> 등 가곡 메들리로 이어졌으며, 성악가들이 열정적으



1. 김자경오페라단 단원이 선사한 11월 마지막 날의 멋진 음악회
2. 음악회를 즐기는 최경희 총장(왼쪽)과 윤후정 명예총장(오른쪽)

3. 장의순 전 고문 4. 윤순희 총동창회 고문 5.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6. 조종남 총동창회 고문 7. 오주엽 동창(오른쪽)과 어머니





1. 행운 선물 당첨자 2. 풍성한 선물이 이화인의 밤을 찾은 동창들을 반겨주었다 3. 이화 발전의 염원을 담아 교가를 부르는 참석자들

로 노래를 마칠 때마다 동창들은 큰 박수와 앙코르, 기립으로 화답했다.

풍성한 행운 선물 잔치로 마무리

행사의 마지막 4부는 행운 잔치 및 선물 증정 시간이었다.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최경희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김승철 의무부총장, 윤순희·김순영·조종남 고문, 홍라희 동창 등이 기증한 행운 선물이 추첨될 때마다 장내는 흥분과 아쉬움, 탄성으로 가득찼다. 특히 행운 선물 증정의 대미를 장식한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기증품 LG트롬 트윈워시 세탁기가 정외과 동창에게 돌아가자 동창들은 큰 박수를 쳐주었다(행운 선물 목록은 16페이지 참조).

3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이화인의 밤 행사는 참석자 모두가 이화 발전의 염원을 담아 함께 교가를 부르며 막을 내렸다. 또한 참석자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과 행운 선물을 한아름 안고 2016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세계의 그늘진 곳에 한 알의 씨앗을 뿌리다

— 칠레, 페루의 오지 마을과 도시의 그늘진 곳에서 26년간 의료봉사

오주엽

1956년생. 부산 경남여고 및 모교 의과대학 졸업. 지방공사 강남병원, 일신기독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다 1990년부터 남미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는 칠레 오지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는 페루의 도시 빈민들을 대상으로 봉사 중이다.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이동진료버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펼친다 2013년부터는 페루 리마에 상설 진료소인 '선한 사마리아인 진료센터'를 열었다. 의료봉사와 함께 리마의 외곽 '레따말' 지역의 도시 빈민들을 위해 초·중·고·대학교를 아우르는 학교를 건립하는 '레따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러나 2013년 페루 국회에서 '기독인 봉사상'의 의료부문 상(賞)인 '다윗의 심장'을 수상하는 등 현지에서는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도 마찬가지이다. 지인의 추천으로 후보에 오른 것을 오 동창은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더 큰 나눔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남편(김명수 목사)의 설득에 기까스로 받아들였다. 후보에게 요구되는 관련 서류 역시 이번 수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오 동창을 대신해 남편 김 목사가 써줬다 한다. '더 큰 나눔'은 페루의 '레따말 프로젝트'를 말한다. 부부는 의료봉사를 넘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페루의 도시 빈민들을 위해 학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칠레 마푸체 인디오들의 대모

제11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인 오주엽(의학 81) 동창은 남미의 슈바이처 같은 존재이다.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과감히 접고 가족과 함께 남미에 정착해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칠레의 오지와 페루의 도시 빈민들에게 무려 26년째 의료봉사를 펼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칠레와 페루에서 이동진료버스로 하루 평균 50여 명을 돌보며 지금까지 수만 명의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봉사를 펼쳐왔지만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해왔기에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결정된 직후, 서울 태평로의 한 커피숍에서 오주엽 동창과 김명수 목사 부부를 만났다. 안식년을 받아 잠깐 귀국한 오 동창 부부는 시상식(11월 30일) 다음 날 페루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남편 김 목사는 오 동창의 의료봉사에 없어선 안 될 존재이다. 모든 봉사의 현장마다 두 사람은 함께 해왔고, 막연히 꿈꿔오던 의료봉사를 현실화시켜 준 이가 바로 남편 김 목사이다.

"아버지가 의사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제게도 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지요. 의대에 진학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의료 활동을 펼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誓願)했지만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그 꿈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온 남편 역시 세계의 그늘진 곳을 찾아 선교활동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군요.” 오 동창의 말이다.

자구의 반대편, 한국서 1만 6000여km 떨어진 칠레를 택한 건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를 통해서였다. 그를 통해 들은 칠레 마푸체 인디오들의 생활은 참담했다. 테무코 지역에서 차로 한 시간여 거리에 사는 40여만 명의 마푸체 족은 의료 혜택에서 소외돼 있었다. 병원은 없었고, 이따금 의사들이 오긴 하지만 언제 올지 몰라 중병에 걸려도 몇 개월씩 꽁꽁 앓는 경우가 허다했다.

칠레 현지 선교회의 초청을 받고 망설임 없이 온 가족이 칠레행 비행기에 올랐다. 1990년, 일곱 살, 네 살 배기 두 아들을 포함해 네 식구가 함께 칠레의 중남부에 있는 도시 ‘콘셉시온’에 등지를 틀었다. 얼마 후 칠레 테무코 지역에 있는 기독병원의 원장을 맡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현지 의사그룹에 인계하여 매각했다. 이는 이동진료 사역의 기회가 됐다. 오 동창은 차체만 있는 트럭을 구입해 진료버스로 개조했다. 앞방은 진료 준비실 및 치료실로, 뒷방은 진료실로 썼다. 커다란 흰색 버스에는 이동병원을 상징하는 움직이는 푸른색 십자가가 안데스산 아래 있는 로고를 새겨 넣었다. 이동진료버스의 이름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동병원’. 마푸체 부족 마을 20곳을 정해 한 달에 평균 한번꼴로 마을 곳곳을 방문했다. 가까운 곳은 하루에 두 곳을 들렸다.

진료버스가 오는 날이면 마푸체 부족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진료비는 한국 돈으로 500원 정도. 처음에는 무료로 진료했지만 진료비를 받는 쪽으로 바꿨다. 오 동창은 “약을 공짜로 줬더니 잘



남편 김명수 목사와 함께(위), 가족사진(아래)

안 먹어요”라며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하죠? 500원이라도 진료비를 내니까 약도 잘 먹고 자존심도 덜 상해 했어요”라고 말했다. 고구마, 계란, 옥수수 등을 삶아와 선물로 내미는 사람도 꽤 됐다. 마푸체 부족에게 그는 대모 같은 존재가 됐다.

난생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이들도 많았다. 오동창은 70대 할머니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3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셨는데, 평생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특별히 불편한 곳은 없지만 병원 진료를 꼭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오셨지요. 산부인과 진료를 받겠다며 오기 직전 깨끗이 샤워를 하셨는데, 비가 와서 진흙탕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지셨다고, 옷이 더러워져서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반년 내내 비가 퍼붓는 우기에는 진료버스 바퀴가 진

흙탕에 빠져서 애를 먹기도 했다. 빠져나오려 애를 쓸 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을 때, 마을 사람들의 소가 구세주가 돼 주었다. 달구지를 이끄는 소 두 마리가 버스를 힘껏 이끌어 수렁에서 빠준 것.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다. 오동창은 이런 고비를 “재밌었어요”라고 회상했다. 힘들거나 아픈 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건 특별히 없었어요. 전염병에 걸린 적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라면서 사람 좋게 웃었다. 그는 하루하루의 의료봉사를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즐기면서 해온 듯했다.

더 소외된 곳을 찾아 페루로

2003년, 의료봉사의 무대를 칠레에서 페루로 옮긴 건 자신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다. 그가 있는 십수년 동안 칠레도 많이 발전해 마푸체 부족들에게도 정부 지원이 닿았다. 오동창 부부는 자신들을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마음 간 곳이 페루 리마의 외곽에 사는 도시 빈민들이다. 리마는 연 강수량이 10mm에 불과한 사막 안의 도시여서 환경이 열악했다. 도시 외곽의 주민들은 수도도 우물도 없이 모래와 먼지 속에 사는 형편이었다. 남편 김명수 목사는 “리마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데 기독교종합병원이 없는 것도 그곳으로 가게 된 계기”라고 덧붙였다.

‘페루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오게 된 페루의 수도 리마의 벤두리 지역의 생활상을 참담했다. 흡사 한국의 6·25 전쟁 직후의 참상을 보는 듯했다. 변화한 수도 리마의 중심가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었지만 생활상은 천양지차였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허허벌판 모래산 위에 지은 판잣집은 센 바람 한 방에 날아갈 듯 허술했다.

페루에서의 의료 활동을 위해 페루적십자사와 의료 협력협정을 맺고 칠레 국경을 넘어 3000km를 달려



2007년 페루 대지진이 덮친 친차시에서(위)
이동진료버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아래)

진료차량을 가져왔다. 리마에서의 이동병원 사역은 대상만 마푸체 인디오에서 도시 빈민으로 바뀐 채 계속되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알게 된 ‘레파밀 계곡’은 이동진료 사역을 상설 진료소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페루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민들도 좀 더 전문화된 의료 진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가진 것 없이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의 첫 정착지 역할을 하게 된 레파밀 계곡은 1만 5000여 명의 주민을 품고 계속 팽창하고 있었다.

레파밀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곳에서는 숙식만 간신히 해결하며 사는 처지였다. 의료혜택이나 학교 같은 문화시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동창 부부는 상설 진료소와 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뜻있는 독지가와 기독교인들의

손길을 모았다.

기적처럼 보이던 막연한 꿈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2013년에 레따말 계곡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를 거느린 상설 진료소 ‘선한 사마리아인 진료센터’를 열었고, 레따말 지역에 학교를 짓는 ‘레따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초·중·고 및 대학교를 아우르는 종합학교이다. 이들의 취지에 동감한 마을 주민들은 주인 없는 땅 3만 평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데 기꺼이 동의했다. 현재는 첫 삽을 떠서 진입로를 만들고, 1250m에 달하는 담장을 완성한 단계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마련된 후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더 큰 기적이 없으면 현실적으로는 까마득해 보인다.

오동창 부부는 칠레와 페루에서의 일을 ‘기적’으로 표현한다. 남편 김목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까지의 일은 우리의 계획에 의해 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일들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뤄주신 것도 하나님께서십니다. 페루 사람들에게 아직 ‘세상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겠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행동이 페루인들에게 그런 세계관을 심어주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의 ‘레따말 프로젝트’

오주엽 동창의 실천은 구한말 헐벗고 굶주린 한국인들을 위해 이화에서 한 알의 씨앗을 뿌린 스크랜튼 여사와 아펜젤러 선생 및 수많은 선교사들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은 이화를 비롯, 교육 혜택이 닿지 못하는 곳에 학교를 열었고, 의료봉사를 펼쳤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운 인재들이 사회 곳곳의 리더가 돼 있다. 세계 최대 여자대학으로 성장한 모교도 그 중의 하나이다. 오동창은 “레따말 프로젝트가 몹시 기대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



안데스 중턱 우아노코에서의 진료(위)
도시 빈민들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레따말 지역(아래)

다. 특히 학교가 건립되면 그곳에서 교육받은 페루의 아이들이 자라서 일꾼이 되겠지요. 그들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오동창은 “쑥스럽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라며 말을 이었다. “2000년 페루에 있을 때 MBC <세계 속의 블루칩>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동창들이 많은 연락과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제가 홀륭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알려서 더 큰 기적을 이루라는 하나님 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있는 동창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15 이화가족 성탄예배 개최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진 합창으로 성탄 축하공연 ‘다 비우시고 없이 계시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돌아보라

성탄 분위기의 시작을 알리듯 흰 눈이 소복소복 내린 2015년 12월 3일(목) 오후 3시, ‘2015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경희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양명수 모교 교목실장,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전·현직 교직원, 이화동창 등이 대강당 2층까지 가득 자리를 메워 성탄의 기쁨을 함께했다.

예배는 양명수 모교 교목실장의 인도로 시작돼, 참석자 모두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이화가 드리는 기도’를 올린 후,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빌립보서 2장 5~11절을 봉독하였다. 또 이화국악관현악단의 동양적 멜로디의 반주로 음대합창단과 김은희 모교 교수가 <오 거룩한 밤>을 불러 노래로 찬양을 올렸다.

이어서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목사가 ‘다 비우시고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손 목사는 세



특별찬송으로 〈King of Love〉를 부른 선교부 합창단

상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빈손으로 세상에 내려오심을 언급하며 우리들도 스스로를 낮추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총동창회 선교부가 〈King of Love〉로 특별찬송을 부르고, 남미·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이화 출신 선교사들에게 성탄선물을 보내는 데 사용될 현금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미순(기독 75) 총동창회 선교부장은 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 물질이 쓰일 것을 기도하였다.

이어 박신화 모교 교수의 지휘로 음대합창단이 〈Let It Snow〉와 〈Jingle Bells〉을 울동과 함께 불러 성탄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원영석 모교 교수가 지휘하는 이화국악관현악단이 〈성탄곡 메들리(고요한 밤 거룩한 밤—기쁜 성탄 축하하세요—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축제〉를 연주하였다. 거문고,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팽과리, 장구, 모듬북, 심벌즈) 등 이화국악관현악단의 동양적 멜로디의 화려하고 웅장한 연주는 참석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무리를 하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따뜻한 떡을 선물하여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으며, 이날 모은 현금은 세계 각국에 나가 활동하는 150여 명의 이화동창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글·이영희(시학 88, 홍보부장)



2015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이화, 아름다운 삶!” 애틀랜타에서 300명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주 동창들의 축제 개막돼

2015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15년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약 300명의 북미주지회연 합회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Ewha, Beautiful Life’라는 가치 아래 애틀랜타 Crowne Plaza Atlanta Perimeter at Ravinia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북미주 이화 동창들의 가장 큰 축제로 해마다 장소를 달리해 열리고 있으며 총동창회와 모교에서 인정하는 연례행사이다. 같은 기간 제45회 이화국제재단 이사회도 함께 개최돼 행사장 안팎은 두 차례의 만찬과 북 미주지회연합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국제재단 이사회, 특강, 주일예배 등 행사가 이어져 이화를 추억하고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번 총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애틀랜타 지회(회장 김정희·약학 79)를 비롯, 남가주(LA), 뉴욕, 텁버, 보스 턴,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워싱턴DC, 클리블랜드, 토론토, 휴스턴 등 북미주 20개 지역에서 온 지회 동창들이 참석하였으며, Marc S.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 박병진 조지아주 하원의원, 유복렬(불어교육 85) 주 알제리대사관 공사참사관 등도 자리를 함께하였다. 모교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경희 총장과 오진경 대외협력처 처장이 참석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을 격려하였고, 총동창회에서는 김영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순영 고문 등이 참석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과 의 회합을 다졌다.



1. 최경희 모교 총장
2. Marc S.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
3.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4. 김영주 총동창회장
5. 김정희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6. 유복렬 공사참사관
7. 박병진 조지아 주 하원의원
8. 성정순 전 총동창회 고문
9.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모습

동창회원 자격 기준 등 각종 안건 토의

10월 29일(목) 오후 3시부터 Crowne Plaza 호텔 로비에 마련된 안내 데스크에는 분홍색 셔츠를 차려 입은 애틀랜타 지회 임원들이 북미 주 각지에서 찾아온 동창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애틀랜타 지회 이사장 정문자(의학 66) 동창과 홍정자(의학 66) 동창도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에 나와 손님맞이로 바쁜 후배들을 격려하였다. 정 동창은 “애틀랜타는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고, 국제공항으로서 입지가 좋으며 기후가 따뜻해서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정착하고 있다”며 “애틀랜타 지회 역시 이화동창이 나날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오후 8시부터는 카멜리아 룸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 북미주지회연합회 고문 및 이사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제갈숙경(관현 79)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사회는 최성남(약학 70) 고문의 기도에 이어 참석자 소개,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격려사, 양승희(사학 73)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과 인준, 제갈숙경 이사장의 전년도 결산 회계보고, 조수현(수학 76) 애틀랜타 지회 총무의 2015년도 예산 회계보고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총동창회 회칙에 준하는 동창회원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와 제2서기 선출, 국제재단 이사 김정진(의학 72) 동창의 해외동창기금 보고, 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각종 토의가 있었으며 2016년 및 2017년 향후 주최지 점검을 하였다.

한편 10월 31일(토) 오전 8시부터 카멜리아 룸에서 2015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총회가 1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채(영문 59) 고문의 기도에 이어 교기제창 및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 모교는 사범대 100주년, 음대 90주년, 의대 70주년, 약대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한 해였다”고 말한 뒤 “이화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이화동창의 저력을 총회에서 보여주길 부





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각 지회 순으로 사업보고, 전 회의록 낭독과 회계보고가 이어졌고, 제갈숙경 이사장의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에 이은 토의, 인준이 있었으며, 제갈숙경 이사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장화인(교심 69) 국제재단 부이사장의 국제재단 사업보고가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이화동창들은 국제적 연대를 다지는 한편, 신축 기숙사 및 마곡 병원의 건축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총회는 2016년 휴스턴, 2017년 뉴욕에서 개최된다.

두 차례의 만찬, 흥겨운 탤런트 선보인 화합과 친지의 한마당

‘총장님과의 만찬’은 10월 30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홍혜진(정외 93) 동창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이화동창들과 모교의 최경희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및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오진경 대외협력처장 등 모교 관계자, Mullinax 국제재단 이사장 및 재단 이사, 박병진 조지아주 하원의원 등 28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에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를 적극 지지하고 돋겠다”며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이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Mullinax 국제재단 이사장은 “우리의 삶이 이화로 인해 달라졌듯이, 다른 사람의 삶 역시 이화로 인해 달라지도록 여기 모인 모두가 힘을 쓰자”고 당부하였다. 최경희 총장은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의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한 뒤 “이화의 도전 목표는 명성이나 명예가 아닌 소명과 실천에 있다”며 “국제재단 이사진 및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이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1. 탤런트쇼 1등 북가주 지회
2. 탤런트쇼 2등 뉴욕 지회
3. 탤런트쇼 3등 휴스턴 지회
4. 애틀랜타 지회의 특별공연
5. 지회연합회 합창단





1. 최경희 총장에게 김정희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이 후원금 약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2. 이수완 동창의 장고춤
3. 함께 일어나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
4. 정호문 동창의 특강

이날 열린 지회별 텔런트쇼에서는 북미주 지역 동창들이 숨겨둔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1등은 북가주 지회의 <팥쥐가 기가 막혀>, 2등은 뉴욕 지회의 댄스팀, 3등은 휴스턴 지회의 <베토벤 바이러스>, 4등은 워싱턴DC 지회의 라인댄스 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다음날 저녁 열린 ‘토요연례대만찬’에서는 유복렬 동창의 ‘외교관의 삶이화인의 삶’ 강연이 있었고, 김정희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이 ‘2015년도 기숙사 건립 후원금 약정서’ 21만 3,000달러를, Mullinax 국제재단 이사장이 ‘2015년도 장학금 약정서’ 3억 원을 최경희 총장에게 전달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지회연합회 합창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합창공연과 애틀랜타 지회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2016년도 개최지인 휴스턴 지회 회장 김명옥(경영 75) 동창에게 지회연합기를 인도하며 행사를 마쳤다.

각종 특강과 애틀랜타 명소 여행으로 추억 다져

이 기간 애틀랜타 지회에서는 각종 특강 및 근교 여행 스케줄을 마련하여 북미주 동창들이 친목과 우의를 다지도록 하였다.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1박 2일간 채터누가와 내슈빌을 다녀온 여행팀은 여행 뒤풀이로 토요만찬 무대에 올라 흥겨운 댄스타임을 가졌고, 30일(금)과 31일(토) 각각 1일 관광으로 코카콜라박물관 및 CNN, 마가렛 미첼 생가 등 애틀랜타 명소를 다녀온 여행팀은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애틀랜타의 아름다움에 친탄을 마지 않았다. 또한 김영례(교심 79) 동창의 ‘긍정 심리학’, 정호문(불문 62) 동창의 ‘동양화 부채 만들기’, 정소영(영문 62) 동창의 ‘스트레스 데리고 살기’, 최인경(교심 89) 동창의 ‘요즘 미술 이야기’, 심성술(김영례 동창 부군) 에모리 의대 교수의 ‘치매, 무엇이 궁금하세요?’ 특강이 이틀간 Crowne Plaza 호텔 곳곳에서 열려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의 호응을 얻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11월 1일(일) 총동창회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와 일요예배를 마친 후 ‘총장님과 대화’를 가지고 모교에 대한 궁금증과 해외 동창들의 희망사항을 대화로 나누었으며, 아쉬운 인사를 남기고 2016년 휴스턴 총회를 기약하며 끝이 났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이화인의 밤’ 행사를 위해 경품을 기증해 주신 분

1	정의숙 전 이사장	3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26	배혜화 총동창회 지역부장	약고주장 20점, 필름포럼 영화티켓 20매
2	윤후정 명예총장	골드바(10g) 1점	27	김미순 총동창회 선교부장	Hai-R3 탈모방지 샴푸 16점
3	장명수 이사장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28	임진 음악대학 동창회장	닥스 스카프 1점
4	최경희 총장	로봇청소기 1대	29	신경희 사범대학 동창회장	상심자(말린 오디) 세트 5점
5	김영주 총동창회장	LG트롬 트윈워시 세탁기 1대	30	오혜숙 의과대학 동창회장	『15초 웃음의 기적』책 50권,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3매
6	김승철 의무부총장	목동병원 패트검진권 1매	31	김진향 간호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7	윤순희 총동창회 고문	삼성지펠 냉장고 1대	32	양수화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MCM 핸드백 1점
8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LG노트북 1대	33	최영은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장	삼성43인치 LED TV 1대
9	조종남 총동창회 고문	LG진공청소기 1대	34	한경희 불문과 동창	한경희 생활가전 5점
10	정준순 총동창회 부회장	에코백 60점	35	이나경 서양화과 동창	아라가야 한복상품권 1매
11	김광옥 총동창회 부회장	에코백 60점	36	박은혜 작곡과 동창	10만 원 도서상품권 3매
12	남상택 총동창회 감사	가죽 카드지갑 15점	37	손성혜 교육과 동창	손성혜 한복상품권 1매
13	이영란 총동창회 감사	가죽 카드지갑 15점	38	육명희 경영학과 동창	크라운 해태제과 선물세트 30점
14	송은미 총동창회 총무	가죽 카드지갑 15점	39	마희자 ALPS 3기 동창	다목적 가방 10점
15	안영호 총동창회 서기	가죽 카드지갑 15점	40	홍라희 ALPS 7기 동창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1대
16	한미경 총동창회 서기	가죽 카드지갑 15점	41	지한용 일양약품 본부장	일양약품 달팽이 마스크팩 1200점
17	박영숙 총동창회 회계	가죽 카드지갑 15점	42	롯데백화점	1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매
18	이승연 총동창회 회계	가죽 카드지갑 15점	43	메디힐	현빈 마스크팩세트, 핸드크림, 립밤 각 1200점
19	한숙영 총동창회 문화부장	가죽 카드지갑 15점	44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목동병원 건강검진권 3매
20	이혜원 총동창회 사업부장	에나멜 클러치백 20점	45	인터컨티넨탈호텔	인터컨티넨탈 2인 뷔페식사권 5매, 숙박권(조식 포함) 1매
21	임산희 총동창회 재정부장	에나멜 클러치백 20점	46	(주)갈더마코리아	세타필 보습제 로션세트 10점
22	곽은아 총동창회 음악부장	에나멜 클러치백 20점	47	(주)샘표식품	시골집 토장 1200점
23	이영희 총동창회 홍보부장	에나멜 클러치백 20점	48	(주)웰크론	세사 알러지 방지 차렵 3점
24	허현미 총동창회 회우부장	에나멜 클러치백 20점	49	(주)태준제약	죽장연 된장 1000점
25	황정인 총동창회 정보통신부장	에나멜 클러치백 20점	50	한국도자기	4인용 식기세트 3점
			51	총동창회	수첩, 달력, 여행용 양면 정리 파우치 각 1200점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문희(약학 59) 동창 **동탑산업훈장 수상**

2015년 11월 18일(수)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8개 약업계 단체가 공동 주최 한 '제29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약사회 대의원으로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문희 동창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 동창은 17대 국회의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규도(성악 63) 동창 **백남상·세일한국가곡상 수상**

모교 명예교수 이규도 동창이 한국 오페라 역사와 성악계에 끼친 공헌을 인정받아 '백남상' 2015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한국 가곡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7회 세일한국가곡상을 수상하였다.



김수지(간호 64) 동창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한국YWCA가 주최하고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는 'YWCA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2015년 11월 5일(목) 열려,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 김수지 동창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김 동창은 197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호스피스 케어를 소개하였으며, 연세대·이화여대 교수, 한국호스피스협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아프리카 말라위의 대양간호대학 학장을 맡아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로 돌아가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안윤정(독문 69) 동창 **동탑산업훈장 수상**

(주)한아인터내셔날 대표 안윤정 동창이 제29회 섬유의 날에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안 동창은 '안윤정 부띠끄'에 이어 '앙스모드' 브랜드로 국내 여성 기성복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립멤버로 5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인으로서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과 여권 신장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송영숙(문정 70) 동창 **독서문화상 장관상 수상**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관장으로 재직 중인 송영숙 동창이 2015년 9월 18일(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21회 독서문화상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혜숙(사생 78) 동창 **한·일 국제환경상 수상**

일본 미에대학 교수이자 지역 ECO 시스템 센터장인 박혜숙 동창이 2015년 10월 29일(목) 제21회 한·일 국제환경상(The Asian Environmental Awards)을 수상하여 상패와 상금 1만 달러를 받았다. 박 동창은 이외에도 쓰다우메코상, 지구온난화방지활동환경상 등을 수상하였다.



김향숙(법학 80) 동창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패 수여**

2015년 9월 23일(수) '2015년 성매매주방주간 기념식'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헌신하고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패'를 받았다.



서예석(유교 80) 동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5년 11월 26일(목)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서예석 동창은 동덕여대 보육교사교육원 주임교수로 17년간 재직 중이며, (사)한국보육교사교육원 전국교수협의회 회장직을 초대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다.



권오란(식영 82) 동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모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권오란 동창이 2015년 11월 18일(수)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가식품클러스터포럼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임영규(경영 82) 동창 **스테이트스트리트 한국지점장 선임**

임영규 동창이 기관투자가 대상의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인 스테이트스트리트 한국지점장으로 선임되었다. 임 동창은 28년간 노바스코사은행에서 근무하며 한국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채은미(불어교육 85) 동창 **암참 부회장 선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2015년 11월 25일(금) 발표한 '2016년 회장단 및 이사회 연례 선거' 결과 페덱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인 채은미 동창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정애(경제 86) 동창 **LG생활건강 부사장 임명**

차별적인 마케팅으로 어려운 사업환경을 뚫고나온 평가를 받은 이정애 동창이 LG생활건강 부사장에 임명되었다. 전무 3년차에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 동창은 LG그룹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 되었다.



송희경(전산 87) 동창 **KT 전무로 승진**

송희경 동창이 KT 첫 여성 전무로 승진하여, 사물인터넷(IoT) 사업단장을 맡게 되었다. 송 동창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홍보대사와 미래창조과학부 클라우드 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정끌별(국문 87) 동창 **2015 청마문학상 수상**

시인이자 모교 국문과 교수인 정끌별 동창이 작품집『은는이가』로 2015청마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이 시집이 단순한 언어유희를 넘어선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고, 삶의 그늘을 깨닫는 서정적 온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민(국제 10) 동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인재상'에서 윤지민 동창이 청년 일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2015년 각종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화동창들

2015년 사법시험 13명 합격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배출 국내 4위

법무부가 2015년 11월 13일(금) 발표한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 가운데 이화동창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합격자의 8.5%, 연대, 고대, 서울 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한 동창은 다음과 같다.

정희정(법학 02), 최재희(법학 05), 김주현·이도겸(법학 06), 김연중(법학 11), 고유정·박진희(법학 12), 한경선(정외 14), 안덕중(수학 15), 김수진·유한실·정고운·한지혜(법학 16).

2015년도 5급 공채 행정직 교육행정직 수석 합격

2015년도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에 재학생 포함 모교 출신 9명이 포함되었다. 이 중 김효라(경영 13) 동창은 교육행정직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

다. 재학생 3명(김지숙, 박미연, 홍민재)을 제외한 동창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보경(경영 07), 최은정(통계 07), 김선기(법학 15), 강단비(정외 16), 김다정(경제 16).

2015년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수석 합격

김나윤(법학 06입학) 동창이 수석합격하였다.

제32회 관세사 시험

모교 출신 합격자는 3명으로, 이중 재학생 1명(정민경), 동창은 김다예(교공 12), 유혜림(경영 16) 2명이다.

제24회 공인노무사 시험

재학생 1명(임정아)을 제외한 합격자는 김민선(사복 03), 류혜원(정외 11) 동창이다.



김효라 동창



김다예 동창



유혜림 동창



김민선 동창



류혜원 동창

“선생님은 늘 설렘을 안기는 분”

1934년생 서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 교육자 이자 작가, 정치인, 문학비평가, 문명비평가 등 전방위 영역에서 활동하며 굵직한 업적을 쌓아왔다. 20대에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시작으로 5개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논설위원을 거쳤고, 초대 문화부장관 및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1967년~1989년 모교 국문과 교수로, 1995년~2001년 석좌교수로 근무하는 등 30년 가까이 모교 강단에 섰다. 현재 (재)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특유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축소 지향의 일본인』『디지로그』『생명이 일본이다』 등의 저서를 통해 문명 읽기의 새로운 시각과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2011년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함께한 제자들(국문 69):

김영자(조선일보 기자, 남부뉴저지 한국학교 교장 역임)
이명숙A(모교 국문과 강사, 중학교 상담교사 역임)
이명숙B(인천 YWCA 회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역임)
이연성(한국고전번역원 및 국사편찬위원회 강사)
이은숙(YMCA 위원, 국문과 총동창회 부회장 역임)
조한숙(국립한경대 겸임교수, 『에세이 문학』 발행인 역임)
(가나다 순)



이어령 국문과 명예교수

이어령 교수에게는 특별한 인연의 제자들이 있다. 무려 49년간 꾸준한 만남을 이어온 모교 국문과의 첫 제자들이 그들이다. 그가 모교에 부임한 첫 해인 1967년에 만난 스무 살 갓 넘은 제자들은 어느덧 70대가 됐다. 예리한 지성으로 송곳 같은 가르침을 전하던 이어령 교수의 눈가에 깊이 파인 주름 못지 않게 제자들의 주름도 깊어졌다.

제자와 대학교수와의 49년 인연은 자구상 어디에도 흔치 않다. 이 교수가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기에 가능한 일이고, 스승과 제자가 끈끈한 만남을 이어왔기에 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 스승이 80대가 되도록 건강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 ‘나의 스승 나의 제자’는 『이화동창』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 제자 중 김영자 동창이 미국으로 영영 가게 되어 송별회를 겸한 만남에

『이화동창』 취재진의 동석을 허락한 자리였다. 이 교수와 제자는 49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서로 간 안부와 근황을 물어왔고, 이번 역시 그 숱한 만남 중 하나였다. 『이화동창』 취재진의 요청에 이 교수는 “제자들과의 50년 인연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며 응했다.

2015년 11월 초, 이 교수와 6명의 제자들을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재)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에서 만났다. 1차로 아곳에서 티타임을, 인근의 한식당에서 2차 만남을 이어갔다. 두 시간 반 넘게 이어진 대화는 이 교수의 비서로부터 “다음 스케줄에 늦으셨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매듭지어졌다.

이어령 교수의 기억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또렷했다. 제자들은 기억조차 못하는 상황을 눈에 보이듯 묘사했고, 지명과 이름 등 고유명사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제자들 근황을 일일이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세심함이 인상적이었다. 81세의 이 교수는 여전히 창조적 사고를 멈추지 않았고, 그 사고를 제자들과 나누며 속 깊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대화의 내용은 자녀와 손주들의 안부에서부터 위안부, 한국 교육의 맹점, 통일 문제 등을 망라했다.

80대 교수와 70대 제자의 50년 인연

이어령 **여러분과 내 인연이 벌써 50년이에요. 이건 한국의 대학사에도 드문 일일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이어서 여성이 결혼하면 사회 활동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여대 교수는 제자가 없을 거라 그랬거든. 그런데 보세요. 나는 서울대학교에서도 강의했는데, 그때 제자들은 거의 안 남았어요. 반면 이화대학 제자들과는 무슨 일**

만 있으면 모였지. 스승의 날마다, 누군가를 축하할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처럼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말이야. 한 명씩 만나기는 쉬워도 이렇게 많은 제자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이명숙B **선생님은 저희에게 정말 특별하시죠. 저뿐 아니라 제 딸도 선생님 제자이고, 딸 결혼식 주례까지 서 주셨잖아요.**

이어령 **강의실에서는 명숙이 딸인지 몰랐어. 맨 앞에 앉아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 엄마가 이명숙이라고. 그 아이가 결혼해서 딸을 낳아 왔길래 그 꼬마한테 내가 그랬어요. “빨리 커서 이화대학에 와라. 3대를 가르칠 수 있게.” 그런데 이 말이 와전돼서 신문사에서 취재까지 왔어요. 3대를 이미 가르친 걸로 알려진 모양이야. 허허.**

조한숙 **선생님이 제 아들 결혼식 주례도 서 주셨죠. 결혼 얘기만 나오면 저는 선생님 말씀이 떠올라요. “결혼하면 절대 헌 양말 신지 말라” 하셨지요. 그 말씀을 평생 실천하려 노력해왔답니다.**

이어령 **여자가 결혼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헌 양말 신는 것도 그중 하나지. 연애 시절에는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곱게 화장하고 예쁜 옷만 골라 입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편해지면서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도 신고, 외출할 때엔 아무 점퍼나 입잖아. 그걸 좋아하는 남편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엇이든 초심을 잊지 말라는 거지.**

김영자 **제가 신혼 때 단칸방에서 셋방살이 할 때 선생님이 오신 거 생각나세요? 그때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밥상도 차려줬는데 그때 일이 까마득하네요. 이건 이번에 제가 낸 화집『책으로 낸 나의 그**

립전』이에요. 여기엔 수채화로 그린 선생님 초상화도 있어요. 비평가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봐주세요.

일동 __ 와~ 선생님 얼굴을 너무 잘 그렸다. 멋있다.
이어령 __ 왜 이렇게 뒤에다 넣었어? 앞에다 넣지.(웃음) 여러분은 내 첫 제자라 각별해요. 첫 수업 시간이 지금도 생각 나. 1967년 2학기에 이화대학 첫 수업을 맡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3학년이었고 김영자가 반장이었지. 당시 김영자, 김명희, 이명숙B 셋이 『문장백과대사전(금성출판사)』 편찬을 도왔는데, ‘단추’의 하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단추가게에 있는 단추를 죄다 사와서 조사하기도 했어. 그때 참 수고가 많았지(『문장백과대사전』은 해당 단어가 성경과 동서고금의 고전, 소설과 연설문 등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광범위하게 기록한 사전이다. 예를 들어 ‘가난’의 경우 100개가 넘는 문장 속 활용 예시가 수록돼 있다. 절판 됐지만 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아 중고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된다).

이명숙B __ 선생님이 주도하시고, 저희가 도운 ‘이광수 유품전’ 전시기획도 특별했어요. 1969년에 선생님은 ‘한국문화연구소’를 만드시고 그 첫 행사로 춘원 이광수 선생의 유품을 모아다가 전시회를 하셨죠. 이 전시가 훗날 영인문학관의 모태가 된 걸로 알아요.

이은숙 __ 선생님은 늘 시대를 앞서가셨어요. 강의도 남달랐지요. 첫 강의가 아마 <현대시 강론>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마다 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은 듯 신선한 충격이 일었고, 번개 맞은 듯 번쩍 하는 깨우침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수업도 있구나’ 신기했죠. 수

업이 너무 재미있고 흥분되고 기다려졌어요.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한 자도 놓치지 않고 강의를 들었어요.

김영자 __ 선생님 시험 전에 우리가 얼마나 떨었니? 다른 과목 시험은 문항 수가 많고 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시험은 달랑 서술형 다섯 문항이잖아. 공부하거나 외운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머리를 쥐어짜며 풀던 기억이 나요.

이명숙A __ 음악, 미술, 건축을 망라한 강의를 하셨죠. 김소월, 김광균, 윤동주의 시 다르게 읽기 강의 내용은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나요. 당시 선생님이 윤동주 시론 연구 과제를 내주셔서 밤새워 연구를 해갔어요.(웃음)

이어령 __ 나는 시 강의를 기호학이나 신비평을 토대로 했어요. 문학은 원래 재미난 이야기인데, 나는 시를 논리적으로 분석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재미없었을 거야. 문학보다는 수학이나 과학과 비슷했으니까. 예를 들어 김광균의 시는 무거움이 없는 시, 중력을 거스르고 중력을 거부하는 가벼운 시적 이미지로 기호학적 분석을 하는 거지. 내 강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일동 __ 아니에요, 선생님.

이연성 __ 선생님 강의는 혁명이었어요. ‘시 분석이 어떻게 저렇게 딱 떨어질까?’ 하고 신기해하며 빨려들듯 수업을 들었어요. 무언가에 훌린 듯 멍한 기분으로 듣기도 했어요.

이명숙B __ 정말 선생님 강의는 열정적이었어요. 종이 친 후 쉬는 시간까지 강의가 이어질 때가 많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설렘’ 때문 같아요. 선생님 시간엔 늘 설렘이 있었어요. 지적인 설렘,



왼쪽부터 이명숙A, 이은숙, 이명숙B, 이어령 교수, 김영자, 이연성, 조한숙 동창

감성적인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학문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시는 설렘이요.

이어령 스승과 제자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방의 관계가 아니에요. 대학 때에는 지적인 교환 관계이지만, 사회에 나오면 인생의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는 거지.

이어령 교수와 여섯 제자들의 대화는 다양한 소재를 오갔다. 때론 이어령 교수가 개화기 의병들의 단발령, 위안부 문제, 통일의 필요성, 참된 기부 방식을 소재로 강연하듯 이야기를 이끄는가 하면, 동고동락한 동창들의 근황을 소재로 이 교수와 제자들이 주거나 받거나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교수뿐 아니라 《문화사상》 주간으로, 문명비평가로, 정치인으로, 신문사 고문으로, 술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늘 ‘선생’이었다. 드러나지 않게 음지에서 도와준 제자가 여럿이고, 옆자리에 앉은 이가 그 누구이든

세상의 이치를 먼저 깨우친 ‘선생’으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체화돼 있다.

이어령 교수와 제자들의 인연은 사회 곳곳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낳기도 했다. 인천 정서진의 ‘노을종’도 그중 하나다. 해넘이 명소인 정서진에는 이곳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노을종’으로 명명하고 관련 시(「정서진 노을종소리」)를 헌시한 이가 바로 이어령 교수다. 이명숙B 동창이 보이지 않는 고리가 됐다. 다음은 시의 일부다.

“저녁노을이 종소리로 울릴 때/나는 비로소 땀이 노동이 되고/눈물이 사랑이 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낮에는 너무 높고 눈부셔 볼 수 없었던 당신을 /이제야 내 눈높이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너무 가까워 노을빛이 내 심장의 피가 됩니다.//저녁이면 길어지는 하루의 그림자를 근심하다가/사랑이 저렇게 불게 타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사람의 정이 그처럼 넓게 번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진행 및 정리·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이사장 초청 총동창회 후원이사 오찬

2015년 11월 6일(금) 오후 12시 학교법인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이사장 초청 총동창회 후원이사 오찬’ 모임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고 있는 후원이사들을 위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 마련한 자리로, 후원이사인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윤순희 고문을 비롯하여 총동창회 임원, 올해의 이화인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장명수 이사장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화가 나를 만들었고 나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며 “대학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즈음 여러분이 모교를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 역시 “모교는 요즘 각종 평가자료와 지표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등 혁신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후원이사로서 모교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진경 대외협력처장은 ‘Innovation

Ewha 가금’, 창립 130주년 소액모금 캠페인인 ‘Ewha Wave 가금’을 소개하며 한 사람의 물결이 이화 20만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창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어 성적 및 가계 곤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의지를 가진 재학생들에게 주는 ‘이화미래설계장학금’과 신축 기숙사 건립 현황 소개가 이어졌고, 후원이사 예우에 대해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명수 이사장 초청 총동창회 후원이사 오찬 모임

총동창회 홈페이지 개설 문제 및 북미주 지역 동창들에게 편지 발송 알려

2015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10월 정기임원회가 총 30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삼성교 육문화관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황정인(컴퓨터 90) 정보통신부장은 총동창회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총동

창회 홈페이지에서는 동창회 소식, 동창 근황, 모교 소식과 같은 게시판 내용을 확대하고, 2011년부터의 《이화동창》을 PDF파일로 제공하기로 하며, 도서관 이용과 동창회비 납부, 동창회 대관 서비스 및 기념품 안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

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윤순희 고문은 ‘동창들에 대한 목동병원의 진료비 혜택’과 같은 서비스 내용의 홍보 등을 메뉴에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김순영 고문은 홈페이지의 게시판이 학교 및 동창회의 소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동창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다. 2016년 모교 창립 13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임원들은 모두 공감하였으며 차후 메뉴를 좀 더 보강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를 추가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10월 말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앞서 북미주 동창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고 “적법한 북미 지역의

대표 동창회는 북미주지회연합회이며, 북미주동창회는 임의단체임을 알리어 미주 지역 동창들의 그간의 의문과 혼동을 해소하고 동창들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편지를 발송하였다”고 알렸다. 또한 김 회장은 “총동창회와 북미주지회연합회는 언제든지 북미주동창회와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정기대바자회 평가가 있었다. 즉석 먹을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어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지 못했던 점, 중복 아이템이 많았던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바자회 횟수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바자회 전에 미리 SNS를 통해 선판매를 하여 큰 수익을 올린 섬유예술과의 선례를 타과 및 지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자고 하였다.

이화의료원 건립 현황 및 동창 진료비 혜택, 회칙 개정안 논의

11월 정기임원회가 2015년 11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28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팀이 특별 참석하여 마곡병원 건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과대 및 마곡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동창들의 참여를 부탁하였으며, 목동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동창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타 대학병원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타 대학병원에서는 ‘동창회비를 납부한 동창’에 한해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화의료원은 모교 동창회에서 동창의 기준을 정해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임원진 모두 모교 졸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시 동창회비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을 주자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화 졸업생 증명은 학위증, 패밀리카드,

도서관출입증 등으로 가능하다.

이화의료원 동창 진료비 감액 혜택(입원·외래)

구분	혜택
의과대 동창 및 배우자	본인 부담 30%
의과대 동창 직계존비속	본인 부담 20%
모교('비' 의과대) 동창 및 배우자	본인 부담 10%
모교('비' 의과대) 동창 직계존비속	없음
증빙요건	의대 동창은 의대 동창회에서 확인증 받아 제출,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비' 의과대 이화동창은 졸업생 증명 서류 제출시 혜택 가능(동창회비 납부와 관계없음)

이화의료원 동창 종합검진 혜택

구분	혜택
의과대 동창 및 배우자	50%
의과대 동문 직계존비속	30%
모교('비' 의과대) 동창 및 배우자	30%
모교('비' 의과대) 동창 직계존비속	20%
증빙요건	위 입원 및 외래 증빙요건과 동일

또한 이 자리에서는 11월에 있을 이화인의 밤 행사와 12월 이화가족 성탄예배 시 준비사항 및 임원들의 역할을 재점검하였다.

기타 안건으로는 모교의 각종 교육과정에 따른 동창회원자격 기준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기 졸업식 및 원우회를 발족한 ‘이화—한경 최고위창조경영과정(ACE아카데미

·Advanced Creative Executive Academy)’ 졸업생을 특별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2016년 3월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졸업생 52명(남성 35명, 여성 17명)을 특별 회원으로 정식 가입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이화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동창을 특별회원으로 두게 된다.

성탄을 찬미하고 한해 마무리하는 12월 정기임원회

12월 정기임원회가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지하1층 리알토에서 열렸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1년에 두 번 동창의 날과 이화인의 밤 행사를 치른 뒤 임원진을 격려하기 위해 총동창회장이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1년 동안 총동창회 행사에 나눔과 봉사, 헌신을 아끼지 않은 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번 정기임원회에서는 회계보고와 각 부(대학원) 보고에 이어 이화인의 밤과 이화가족 성탄예배 평가가 함께 열렸다. 김순영 고문은 “매년 모교발전 기금을 1억 원을 기증하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 8억 원 모금은 놀랍기만 하다”며 “이를 위해 애쓴 김영주 총동창회장 이하 동창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였다.

한편 김미순 선교부장은 “이화가족 성탄예배 시 선교부와 사대 동창합창단, 진명여고 이화동창, 하나님을 사랑하는 합창단이 연합하여 특별찬송을 부른 시도가 좋았다”고 말하였고, 김진향(간호 73) 간호대 회장은 “당일 퇴직 이화교직원 오찬이 있어 많은 퇴임교수들이 성탄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말하였다.

이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지난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 열렸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다시 이화인(Begin Again at Ewha)’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화 웨이브’ 장학금에도 임원진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2016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주십시오

동창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3만 원)는 지로용지 대신 아래 계좌번호로 보내셔도 됩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 이대총동창회)

선교부 소식 34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

12월 1일(화)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2015년 겨울 단기선교를 떠나는 모교 재학생들을 초청하여 환송 예배를 드렸다. 양현혜 목사는 마태복음 16장 13~28절의 ‘껴안고 가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목사는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내가 껴안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며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김영주 (교육 71) 총동창회 회장은 선교지로 떠나는 담대한 믿음을 칭찬하며,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도록 격려했다. 필리핀 선교사 오은주 (영문 74) 동창은 격려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 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다. 또 한 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것과 선교지에 계

시는 선교사들을 잘 돋고 동역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권면하였다.

이어서 선교지로 떠나는 학생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이 기도 제목은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각 과 선교부장들과 함께 선교부 기도모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하였다. 이날 단기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위해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애찬과 후원금을, 기독교학과 선교부장은 떡을 선물하며 격려했다.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에 참석한 선교부 동창들

이화가족 성탄예배

2015년 12월 3일(목)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이화가족 성탄예배를 드렸다. 총동창회 선교부는 특별찬송 찬양에 참여했다. 선교부원들은 두 달 전부터 모여서 특별찬송곡 <사랑의 왕>을 연습하며 준비했다. 당일 사범대 동창합창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창단 등과 연합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더욱 은혜가 배가되었다. 그리고 현금할 때에는 총동창회 선교부 파송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영상을 보여줌

으로써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심어주었다. 이날 모인 현금은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선교사 김은경(성악 04)·노선영(성악 02) 동창도 함께 특별찬송 찬양에 참여하였고, 에티오피아에서 현지인 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박종국(장은혜 영교 85 선교사 부군) 선교사와 현지 형제도 함께 참여하여 이화가족 성탄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

새천년을 열어갈 빛과 생명과 부활의 대학교회

정문을 지나 박물관을 끼고 조금만 걸어들어 가면 대학교회가 보인다. 첫 예배를 드린 중강당(에머슨홀) 시대에 이어 대강당 시대를 거쳐온 대학교회가 지금의 성전으로 새 터전을 잡은 것은 2000년이었다. 신축 말이 나올 때부터 대학교회 측은 새 성전을 ‘세상에 속해 있되 속하지 않는’ 이미지로 재현하고자 했다. 세상에 속해 있음을 뜻하는 저층부 기단과 속세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상에 떠 있는 상부 구조의 외양은 첫눈에도 아름답고 거룩하기까지 하다.

또 하나 십자가와 부활의 이미지는 불규칙하게 얹은 철골 구조물로 드러냈는데, 예수의 고행을 의미하는 가시면류관은 밤이 되면 고난의 시대를 밝은 빛으로 비춰주며 부활의 상징으로 빛난다. 대학교회는 시작 때부터 이화동산 안에 있지만 모교와 어느 정도 독립된 순수한 예배공동체이다. 다른 일반 교회와는 다르게 매주 한 번 일요일 오전 11시에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 모교 졸업생과 그 가족들,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 전경

역사의 중심에 선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회인 모교 대학교회가 걸어온 시간은 우리 역사와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35년 7월, 본관 교장실에서 이화여전, 연희전문 두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 연합교회인 협성교회를 발족하고 9월 29일 주일 아침 아펜젤러 교장, 김활란, 임영신 등 모교 위원과 에비슨 교장, 백낙준, 이춘호 등 연희전문 위원들을 포함해 두 학교의 학생과 그 가족들, 교직원들이 모여 연희전문 교목이었던 장석영 담임 목사의 주도로 중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였다.

협성교회가 예배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을 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더욱 집요해졌고 기독

교 학교라는 이유로 그 박해는 더욱 혹독했다. 학교 건물 지붕 머리에 새겨진 십자가가 눈에 거슬린다며 떼어내고, 기도실의 유리창도 깨버렸다. 계속되는 박해에 견디다 못 해 1942년 12월 예배를 끝으로 협성교회는 폐쇄되고 말았다.

모교의 선배들은 구약 시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되새기며 비밀리에 기도 모임을 이어갔다. 매일 진관 기도실에서 가숙사생들은 6시부터 30분간 아침 기도회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올렸다. 이때의 대학교회는 학생들이 주축이 된 만큼 아카데믹한 분위기였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전쟁이 일어났다. 대학교회 역시 전기와 수도,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천막 교회에서 예배하며 피난 시절을 보냈다. 그곳에서 주보를 펴내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대학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52년 3월 16일 처음 발행되기 시작한 주보에는 지난주 참석한 교인의 수와 교회 소식 등이 실렸으며 교인들이 명상할 거리를 게재하여 신앙 교육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또 음악예배라는 특별 예배 형식을 만들어 그해 추수감사절 예배에는 차이코프스키의 <천사 찬미>, 헨델의 <라르고> 등을 연주하기도 했다.

신촌 다락방 시대, 주변의 이웃으로 눈 돌리다

종전 후 다시 신촌으로 돌아온 대학교회는 전쟁의 아픔을 겪은 이웃을 위로하고 보듬기 위해 주위로 시선을 옮겼다. 매주 예배 전에 친송 부르기와 성서 공부에서 출발한 대학교회 내 장년부 성경연구반이 금란전도협회를 만들어 변두리와 무의촌에 진료 봉사와 함께 농촌 봉사 활동을 벌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 무렵 다락방 건립 움직임이 일었다. 기숙사, 진관 식당, 총장 공관을 옮겨 다니는 불편함 없이 수시로 모여 기도하고 전도 문제를 고민하는 회의 장소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건립기금 250만 원을 목표로 ‘다락방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카드를 발매하기도 했다. 처음 계획했던 30평 규모보다 훨씬 큰 기도실 45평을 포함한 130평 정도의 넓은 공간이 이대부속중학교 남쪽에 지어졌고 이름도 다락방 전도협회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은 1966년이었다. 그때부터 대학교회와 금란전도협회의 주요 활동장소였던 이곳은 2004년 모교 부속기관으로 편입되었다.

대학교회의 명물인 대강당 49계단에서 드리는 부활절 새벽예배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였다. 부활절 새벽, 하얀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기독교학과 학생들이 계단에 모여 대학교회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당시 모교는 이날을 위해 청량리, 영등포, 수유리 등 5개 노선을 운영해 서울 시내 전 지역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때 시작된 부활절 새벽예배는 이후 정례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강당 시절 주일 예배 후의 풍경

새 성전 건설을 위해 뜻을 모으다

중강당은 많은 교우들이 함께 앉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에는 턱없이 좁았다. 어른들이 중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동부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관이나 다락방으로 옮겨 다녔다. 교우들이 점차 늘어나 1991년 4월부터는 온전히 대강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은 중강당으로, 영유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은 이대 부속유치원 교실을 빌려 사용하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던 선생님들의 불만도 커고, 어른들 역시 성경공부나 모임 장소가 일정치 않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수십 년 동안의 노력에도 한참 모자라는 현금과 미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무산 위기에 처했던 1994년 여름, 주식회사 영안모자의 백성학(윤순희 총동창회 고문의 부군) 회장이 “이화여대에서 새로운 교회 건물을 세운다면 그 건축비를 희사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학교회와 모교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었다. 6·25 때 11세 어린 나이에 홀로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 백성학 회장은 평생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했다. 어머니 김숙녀 여사가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며 고통받다가 신의주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백성학 회장은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를 모교 내에 건축하고 싶다고 했다.

1996년 2월 윤후정 총장이 전체교수회의에서 대학교회 신축안을 발표했고, 이듬해에 지금의 자리로 부지가 확정되면서 대학교회 건축의 꿈은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다. 1998년 3월 24일 국제교육관과 함께 기공식을 갖고 900석 규모의 예배실을 갖춘 지하 1층~지상 4층의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교우들이 모은 22억 원의 건축현금과 백성학 회장의 30억 현금, 학교의 부지 제공으로 완공된 대학교회는 2000년 5월 31일 봉헌식을 갖게 됨으로써 대강당과 함께 이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대학교회는 미래교회의 이상 모델

2009년부터 대학교회 담임목사이자 모교의 교목으로 재직하면서 기독교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양명수 목사는 대학교회가 지난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대학교회는 해방과 전쟁, 산업기에는 학생들에게는 신앙의 요람이었고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교목실과 함께 학교 부흥회를 주관하기도 하고 다락방 청년회와 대학생회 등 활발한 기독교 청년운동의 산실이 되어 왔지요.”

덧붙여 그는 대학교회가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할 미래교회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장로나



부활절 새벽예배(1987년)

권사 등의 위계적 직분제를 폐지한 것, 감리교, 장로교 같은 교파에 관계없이 모든 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볼 수 있는 열린 교회, 평신도들이 3년의 임기로 봉사하는 임원제 운영, 그리고 목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설 수 있는 설교 강단, 교육비와 선교비, 사회봉사비가 전체 재정의 60%를 넘는 깨끗한 교회 재정 운영, 강요하지 않는 현금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참신양의 모범, 순수한 신양공동체

예나 지금이나 모교와 대학교회는 따로 한 몸이다. 설립 정신의 뿌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감리교단 소속교회로 채플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다가 1975년 교단에서 탈퇴하면서 독립 교회로 전환한 대학교회는 특정 교단에 편중되지 않는 신학적 자유로움과 대학이라는 공동체 가 갖는 풍부한 인적 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예배를 만들어냈다. 1950년대부터 음악예배와 부활절 새벽예배, 야외예배, 무용예배, 생명예배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함께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오고 있다.

선교 활동에서도 늘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김활란 초대 학장이 만든 다락방전도협회는 국내에서는 대신교회, 금란교회, 고사리교회 등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했으며, 1961년 한국 기독교 사상 처음으로 파키스탄에 선교사를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캄보디아와 파키스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다. 다락방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장년부 성경공부반은 매월 1회 기독교 고전『아우렐리우스의 고백록』을 2년 동안 공부해오고 있고, 오천석 박사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요즘도 약 100명의 아동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기도 모임을 계속 해왔던 기숙사 기도실은 대학교회와는 남다른 인연이지요. 당연히 새로운 기숙사에 들어갈 기도실은 대학교회 교인들의 현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후원하게 됐어요.”

ECC 내 기도실 건축 때처럼 2015년에 신축 기숙사 기도실 건축기금으로 1억 원을 후원한 대학교회는 장학금 이외에도 가난한 재학생 300명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식권도 지원하는 등 모교를 위한 후원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글·윤혜숙(신방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현재 대학교회의 예배 모습



자랑스런 이화의 얼굴

IBK 기업은행 개인고객본부 부행장 김성미(영문 82) 동창

“은행원 같지 않은 은행원, ‘나다움’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어요”

2015년 포브스코리아 경제계 파워우먼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자리에 오게 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죠. 저 역시 그랬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매일 하는 일도 매번 의심해보고, 남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일하려고 했어요. 제가 은행에 들어올 때만 해도 남성 중심 사회였죠. 여자는 동등한 직장 동료나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좀 열등하다 느끼면 상당히 우호적인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다분히 경계의 대상이었고 어떻게든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시험을 거쳐 입사했는데도 승진이나 일의 직군에서도 심한 차별이 있는데다 ‘정말 은행원이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하는 고민을 아침마다 하던 터였으니 몹시 힘들었죠. 그런 방황도 잠시, 여자여서 받아야 하는 부당한 편견을 깨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여자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남자와 다를 바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자는, 그래서 남들처럼, 아니 기존의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일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죠. ‘여성’이라는 것이 핸디캡이라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은행원 김성미’가 아니라 제 스스로, ‘인간 김성미답게’ 일하자는 생각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한 힘인 것 같아요.

‘패셔니스타’ ‘모델 같은 부행장’이라는 신문기사가 헛말이 아니네요. 어린 시절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열 살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마론인형을 사다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매일 인형 옷을 만들어 입혔다 벗겼다하면서 밤을 새곤 했어요. 아버지도 “성미는 나중에 의상디자이너 하면 되겠다” 그럴 정도였죠. 어린 마음에도 이게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형 옷을 만들고 입힐 때는 행복하고 성취감도 느꼈지요. 초·중·고 시절에 사생대회에 나가면 입상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서 정말 나한테 그림과 예술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 길을 가려면 학교 수업 이외에 미술학원에 다녀야하는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힘든 일이었어요. 언

니, 오빠, 제가 동시에 대학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은 취미로 하지, 뭐’ 그랬죠. 숙명여고 때는 이과였는데, 이리 되려고 그랬는지 학력고사 점수가 좋지 않아 문과로 바꿔 원서를 써야 했어요.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죠. 그때 삼촌들이 그러더라고요. 경영학과, 신방과 같은 응용 학문보다 문학, 철학 같은 기초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앞으로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요?

매캐한 쇠루가스와 격렬한 시위, 잦은 휴교령만 떠오르는 학창 시절이지만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접었던 그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미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탈춤반에도 들어갔어요. 강의실보다 동아리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세상은 어지러웠지만 학관 잔디밭에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앉아 도시락을 까먹고, 시국이 어떻고, 연애가 어떻고, 끝도 없이 깔깔거렸죠. 힘들었다는 기억보다는 치열하게, 자유롭게,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이화동산에서 보낸 스무 살 시절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만은 확실해요.

대학 친구들조차 “네가 은행원이라니, 정말 안 어울려” 그러셨다는데 정말 어떻게 은행원이 되셨어요?

대학 4학년 때 국민은행에 다니던 언니가 추계야 유회에 같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날 즐겁게 논 기억밖에 없는데 얼마 후 그때 나를 눈여겨본 언니 상사께서 동생한테 전해주라면서 기업은행 입사지원서를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은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것도 큰 장점이고, 은행원이 일반 사기업 사원보다 복지도 잘 되어 있으니 여자 직업으로서는 괜찮지 않나?”고 부추기셨어요. 그냥 시험만 보자 싶었는데 덜컥 합격한 거예요. 그때 200명의 신입사원 중에 여자 직원은 6명이었는데, 저만 빼고 모두 중간에 그만두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결혼, 출산, 승진 등 매 단계마다 고비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에서야 이야기인데 부행장이 되려고 엄청 노력했던 언니는 지역본부장으로 몇 년 전 퇴임했고, 별 야망도 없던 저는 지금 부행장을 하고 있네요. (웃음)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길만 걸어오셨잖아요? 아직 을 생각하신 적은 없었나요?

세 번쯤 있었어요. 한미은행이 생겼을 때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한 우물을 파라고 하셔서 접었어요. 또 한 번은 평화은행이 생겼을 때였어요. 국민은행 출신의 여자 지점장 후보가 있으니, 그에 대적할 기업은행 출신의 여자 지점장 후보군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 오면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는 제의에 솔깃했어요. 이때도 아버지의 만류에 포기했어요.

2003년 과장 시절, 무조건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를 가진 경상도 출신 직속 차장이 계셨는데, 사사건건 트집에다 일을 못할 정도로 간섭이 심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참다못해 지점장님한테 다른 지점으로 옮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지점장님은 인사이동 때 반영하겠다더니 아무런 변동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사표를 썼죠. 그랬더니 지점장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느냐”며, 출근할 곳을 구해오면 사표를 받겠다며 3개월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잘 버텨서 오늘이 있게 된 거죠.

지점장 시절에 여러 신기록을 세우셨다고 들었는데
부행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는 건지요.

남과 똑같이 하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남과 다르게,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을 갖자는 게 저의 영업 전략이에요. 편한 길보다는 어렵고 고단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면서요.

제조업체들이 몰려 있는 공단 지점은 남자도 버티기 힘든 곳이었는데 당시 조준희 전 행장님이 주위의 인사담당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월중앙지점 지점장으로 절 보내셨죠. 공단 지역은 기업은행의 영업력이 강한 곳이라 기업은행이 매우 많았어요. 특히 제가 지점장으로 있던 반월중앙지점 바로 위에 있는 반월지점은 우리나라 전 은행을 망라해서 전국 최고 규모의 지점이었고, 바로 밑에 소재한 반월공단지점은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던 분이 지점장으로 계셨죠. 두 지점장님은 입사동기에다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셨고 큰 야망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제가 부임한 지점은 퇴직을 코앞에 둔 선배 지점장들이 계셨던 곳이라 만년 영업실적 꼴등의 점포였어요. 은행 안에서도, 주위 사람들도 하나같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반신반의하는 시선이었어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나한테까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도전욕을 부추겼죠. 고객들을 찾아 나섰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맸어요. 그때 절박해야 크리에이티브해진다는 교훈을 얻었죠. 그렇게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면 그분들이 나서서 다른 고객들을 소개해주시더라고요. 그 덕에 부임 6개월 만에 1등 점포가 되었고, 지점장을 맡은 지 1년 만에 남중지역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기업은행에서 벌이는 여러 캠페인의 중심에 부행장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으로서

의 관련 업무와도 상관이 있겠지요? 또 201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기업 영업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요. 개인고객 기반이 탄탄한 은행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들과 신규 고객들을 유효 고객화해서 평생 기업은행 고객으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함내라 대한민국’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고객들을 움직이는 건 이자율 같은 혜택보다는 감동이라는 전제 아래, 생애주기별로 체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에 따라 IBK와 함께하는 노래마당, 아빠와 함께하는 병영체험, DMZ 방문, 대학 입시 설명회, 역사 체험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고객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고객 체험 프로그램을 차례차례 실행하고 있어요. 그 결과 개인고객 수 130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보다 유효 고객이 60만 명 증가했어요.

2015년 가장 큰 성과라면 지난 5월 국방부의 나라 사랑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거예요. 징병검사를 받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자급되는 전자통장과 현금카드, 전자병역증 기능을 가진 이 카드에 대해 10년 동안 배타적인 영업권을 갖게 된 거죠. 제대 후에도 계속 우리 은행의 고객으로 남도록 청년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에요.

얼마 전 기흥연수원에서 PB VM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SOMEBODY TO LOVE… 부행장님과 함께 하는 인문학 토크> 강연을 할 만큼 공부하는 부행장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계기라도 있나요?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지점장을 고객들은 원할 거예요. 그러려면

은행 안보다는 여러 곳을 다니며 인맥도 쌓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하지요.

2006년, 잠실의 트리지움지점이 개설될 때 팀장 시절 모시고 있던 지점장님께서 지점장을 공모하는데 왜 지원하지 않느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적극 권유하셔서 마감 1시간 전에 부랴부랴 원서를 냈어요. 다행히 선발되어 지점 후보자를 가보았더니 허름한 병원 건물에다 위치도 좋지 않아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점포 개설을 준비하면서 인근 건물주들을 모두 알게 되었는데 그중 한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 원장으로 있는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과정을 소개해 주셔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후 안산 반월중앙지점에 있을 때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최고위 과정을, 남중지역본부 본부장 시절에는 진대제 AMP를, 지금은 서울대 인문학 과정에 다니고 있어요. 지점장들 앞에서 ‘상품을 팔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사라, 그리고 스스로를 상품화하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게 입에 빨린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큰 것도 있고요.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부행장님을 종종 “기업은행과 결혼한 사람”이라 소개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연인가요?

반월중앙지점장 시절 전국 영업점장회의 때 천여 명 기까운 지점장들 앞에서 건배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은행을 그만두거나은퇴해도, 아내와 아들딸 같은 가족이 남지만 저는 결혼도 않고(못했다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은행 일만 하고 살았는데 혹시라도 기업은행이 어딘가에 합병되거나 사라진다면 내 인생에 큰 회한이 될 것 같다고,

그러니 기업은행은 절대 사라져서도 안 되고, 최고의 은행이 되어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날 이후 저한테 그 꼬리표가 붙게 된 것 같아요.

모교의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그룹에도 모교 출신의 후배들이 많이 있고, 은행 전체로 보면 100여 명이 넘는 후배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 후배들을 볼 때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능력도 재능도 미모도 모두 출중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대생들이 갖고 있는 묘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나오게 된 후배들에게 여성으로서 특별 대우 받기를 바라지 말고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어요. 남들처럼, 남들만큼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남에게 보여지는 성공이 아니라 자기를 실험대에 올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미션을 수행해냄으로써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성공이야말로 진짜 성공이거든요. 또 너무 쉽고 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고생 끝에 단 열매를 얻듯이 힘들수록 더 견뎌내겠다는 끈기와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 모험을 자처하는 패기, 주어진 것과 기존의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제기하는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길지만 그 역시 매 순간순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을 지탱하는 힘은 남과는 다르다는 나만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글·윤혜숙(신방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모교 소식

최경희 총장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및 이화국제재단 이사회 참석, 하버드 대 특강

모교 최경희 총장은 2015년 10월 30일(금)부터 11월 4일(수)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이대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및 이화국제재단 이사회에 참석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10월 30일(금)부터 11월 1일(일)까지 ‘2015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최 총장은 현지 여러 매체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여자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화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미주 20개 도시에서 온 300여 명의 동창들과 이화국제재단 멤버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이화동창들은 국제적 연대를 다지는 한편 신축 가숙사 및 마곡병원의 건축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서 최 총장은 이화국제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모교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국제재단 이사진 및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과 함께 이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11월 2일(월) 매사추세츠 주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리더십 포럼의 특별연사로 초청된 최 총장은 ‘한국 대학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이화여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참고로 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강연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한국 대학의

현실을 소개하고, 129년의 긴 역사 속에서 혁신을 거듭해온 이화의 발전사를 살펴보며 21세기 대학이 얻어야 할 교훈을 고찰하고 이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 세계 대학의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하버드 대 한국학연구소의 특강은 반기문 UN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의 유명 인사들이 연단에 섰던 고품격 학술의 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강의 연사로서 최 총장이 초청된 것은 모교와 하버드 대 간의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모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하버드 대 서머스쿨 프로그램(EHSSP·Ewha-Harvard Summer School Program) 파트너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10년 연속 여름 계절학기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버드 대 학생들과 학습

및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HCAP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프로그램의 파트너로도 선정되어 2007년부터 공동 운영 중이다. 또한 하버드 대 최초 여성 총장인 드류 길핀 파우스트 총장이 지난 2013년 ‘명예 이화인’으로 선정되어 모교를 방문한 바 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모교 방문

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앞두고 국빈 방문한 프랑수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이 2015년 11월 4일(수) 모교를 방문하였다.

ECC 광장에서 최경희 총장의 환대를 받은 올랑드 대통령은 재학생들과 프랑스 유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한국음악과 학생연주단의 환영음악을 듣고, ECC를 설계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안내를 받으며 국내 최대 지하캠퍼스 ECC를 둘러보았다.

이후 아령당으로 이동한 올랑드 대통령은 ‘기후환경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열린 고위급 좌담회에 최경희 총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좌담회에는 로랑 파비우스 외무부 장관, 세골렌 루아얄 환경부 장관, 마셀 사팽 재무부 장관 등 프랑스 요직자들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장, 고건 전 국무총리 겸 기후변화센터 명예이사장 등 국내 고위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좌담회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이화여대의 아름다움과 한국을 넘어선 영향력에 감동받았다”고 모교를 방문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였

다. 프랑스는 11월 30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의장국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1999년), 독일 메르켈 총리(2010년) 등 세계 각국 국빈에 이은 올랑드 대통령의 모교 방문은 1886년 한·불 수교 아래 프랑스 정상의 최초 국내 대학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화여대와 프랑스의 오래되고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교는 프랑스 대학들과 36개 교류협정을 체결 중이며 프랑스와의 교환학생 규모가 유럽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르 클레지오가 모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ECC는 모교의 대표 건축물이자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을 때 빼놓지 않고 들르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 특강

모교 이화인문과학원은 2015년 11월 25일(수) ECC 이삼봉홀에서 ‘제15회 김옥길 기념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 교수가 초청되어 특강을 하였다.

최경희 총장은 “김옥길 기념강좌는 이화의 큰 승이며 한국 현대사의 큰 어른이신 김옥길 선생님의 삶과 뜻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는 큰 행사”라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르 클레지오 교수의 특강을 통해 시

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이어 르 클레지오 교수가 ‘혼종(混種)과 풍요’를 키워드로 최근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과 이민자 문제를 다룬 특강을 시작하였다. 르 클레지오 교수는 “한국과 프랑스는 오랜 역사를 거쳐 다양한 민족이 교류하고 충돌하며 다문화적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며 한국이 아주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오늘날 이민자 문제가 유럽을 위협하는 요소처럼 묘사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 이슬람, 아랍 세계의 이민자들 덕분에 유럽은 풍요로운 문화, 지성, 창의성의 혜택을 얻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타자에게 문을 열지 않고 스스로를 가두는 문화는 죽은 문화이며 순수성의 정체성에 갇히는 것은 평화와 번영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의 새로운 피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소위 ‘인심’이라 불리는 한국인의 넉넉하고 큰 마음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이튿날인 11월 26일(목) 인문관 111호에서는 같은 주제로 좌담회가 마련되었다. 르 클레지오 교수 외에 송기정 이화인문과학원장, 정명교(정과리) 연세대 국문과 교수,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인문사회분야 석학이 참여하여 아주 문제와 문화다양성 수용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국형 온라인강좌 K-MOOC 서비스 개시

모교는 2015년 10월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서비스를 개시하여 누구나 모교의 명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모교는 2015년에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및 KAIST 등 국내 주요 9개 대학과 함께 총 27개 강좌를 웹사이트(<http://www.kmooc.kr/>)에서 무료 공개하는 ‘K-MOOC’ 서비스에 참여하였다. 앞서 2013년 국내 최초로 ‘아이튠즈 U’ 서비스를 통해 정규강좌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인기교육과정 1~10위 안에 2개의 강의를 포함시킬 정도로 선도적 행보를 보인 모교가 ‘K-MOOC’ 서비스에도 참여함에 따라 온라인 학습자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모교가 제공하는 강좌는 물리학전공 김찬주 교수의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 디지털미디어 학부 류철균 교수의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건축학전공 임석재 교수의 <건축으로 읽는 사회문화사>, 사회학전공 함인희 교수의 <인간행위와 사회구조> 등 4개 과목이다.

학습을 원하는 사람은 K-MOOC 홈페이지 (<http://www.kmooc.kr/>)에서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퀴즈, 과제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모교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교는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나눔을 선도할 예정이다.

이화의료원 새 병원 및 의과대학 착공식 개최

2015년 11월 23일(월) 강서구 내발산동 신축 현장에서 이화의료원 새 병원 및 의과대학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이화의료원 새 병원은 지하 5층~지상 10층의 1036병상 규모, 의과대학은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되며,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2018년 하반기 준공된다.

착공식에는 모교의 윤후정 명예총장,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및 우복희 이사, 최경희 총장, 김승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효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오혜숙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직원·동창·기부자 등 학교 관계자, 그리고 노현송 강서구 청장, 신기남 국회의원, 김성태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연구 강서구의회 의장, 이성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새 병원 및 의과대학의 착공을 축하했다.



최경희 총장은 기념사에서 “새 병원과 의과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진료 시스템을 갖추어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라는 비전의 실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신축은 이화의료원이 동북아 국제의료 허브 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의료원 새 병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환경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설계됐으며, 완벽한 감염관리를 위해 공조시스템이 분리된 호흡기 내과 병동과 음압격리병동 및 응급의료센터 내 음압 격리실, 병동 내 별도 면회실 등이 설치된다.

아울러 암과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을 특화 육성하며, 첨단 국제진료센터와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운영, 당일 진료 및 검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외국인 전용 원무창구 개설 등을 통해 국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새 병원과 함께 신축되는 의과대학은 첨단 영상회의 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 동시통역시설을 완비한 강당, 최신 기숙사 등 최고의 교육연구시설로 지어져 국내 의학발전과 국제 의학교류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계획이다.

박물관 소식

한국박물관협회 ‘올해의 우수활동상’ 수상

모교 박물관(관장 장남원 교수) 개관 80주년 기념 특별전 ‘조선백자’가 한국박물관협회 주최 ‘2015 올해의 박물관·미술관 시상’에서 기획전시 부문 ‘올해의 우수활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모교 박물관은 2015년 11월 15일(일) 서울특별

시박물관협의회가 주최한 ‘서울 뮤지엄 퍼블리케이션 어워드’에서 특별전 도록『조선백자』가 ‘한국박물관협회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기획전시 부문 ‘올해의 우수활동상’을 받음으로써 겹경사를 맞게 되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주 알제리대사관 공사참사관 유복렬 동창

“외교관으로서 엄마로서 이화인의 긍지를 갖고 살았어요”

2011년 국립박물관에서는 특별하고 의미 깊은 전시가 열렸다. 오랜 협상 끝에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가 그 위용을 드러내자, 국민들은 145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우리 문화재를 열렬한 환호로 응대했다. 외규장각은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의 부속시설로, 외세의 한양 함락에 대비해 의궤 등 귀중한 왕실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1782년 정조가 강화도에 설치한 왕실 서고이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에 의해 외규장각이 소실되면서 당시 아곳에 보관 중이던 의궤를 비롯한 귀중한 자료가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었다. 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다. 조선 왕조 의궤는 예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의 특징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의 통치 철학 및 운영체계를 알게 하는 의미 있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외규장각 자료들이 모두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1975년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에 의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의

궤가 발견되면서 ‘약탈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게 되었다. 1991년 외무부는 프랑스 측에 반환을 공식 요청하였고, 이때부터 ‘약탈 문화재 반환’이라는 기나긴 협상이 시작되었다. 반환협상에 나선 지 2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만큼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협상의 실무 책임자 유복렬(불어교육 85, 현 알제리 주재 공사참사관) 동창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켰다. 유 동창은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있던 ‘외규장각 의궤 반환협상’에 실무협상자로 참여하면서 당시 박홍신 주불대사와 함께 의궤가 우리 곁에 돌아오도록 결과물을 이끌어내었다. 유 동창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근정포장을 받았다.

의궤 반환 협상의 실무 책임자로

유복렬 동창은 모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로 유학, 현대 불문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국제관계전문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외교관이 되었다. 유동창은 1998년부터 10년간 대통령의 프랑스어 통역을 맡았을 정도로 프랑스어 실력이 뛰어나고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교관으로 평평이나 있다.

유동창은 1997년 외교부에 들어가 서구와 프랑스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서 1991년부터 있어온 의궤 반환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은 1993년 미테랑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프랑스가 한국의 고속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의궤 문제를 ‘교류와 대여’의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94년 한국정부는 민간전문가 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시작했지만 양측의 시각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았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고문서관에서 1999년 처음 의궤를 보았습니다. 서고 안 오래된 탁자 위에 의궤 몇 권이 올려져 있었지요. 의궤를 보러간 협상단을 위해 펼쳐놓은 것인데 워낙 크기가 커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 유명한『직지심체요절』도 놓여 있는데, 주한 프랑스 외교관이 지방 시찰을 나갔다가 우연히 구입한 것을 후일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문화유산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라는 안타까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의궤는 결국 ‘갱신 대여’ 형태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완전한 환수는 아니지만 반환을 극렬히 반대한 프랑스 여론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결과도 얻기 힘들었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유동창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배경에는 그 동안 프랑스 내부인사들과 돋도 쌓아온 친분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의궤 협상은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서 오랜 시간 진행되었지만 유동창은 1997년부터 14년간 이 협상에 계속 관여하고 참여해온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점도 한몫했다.

유복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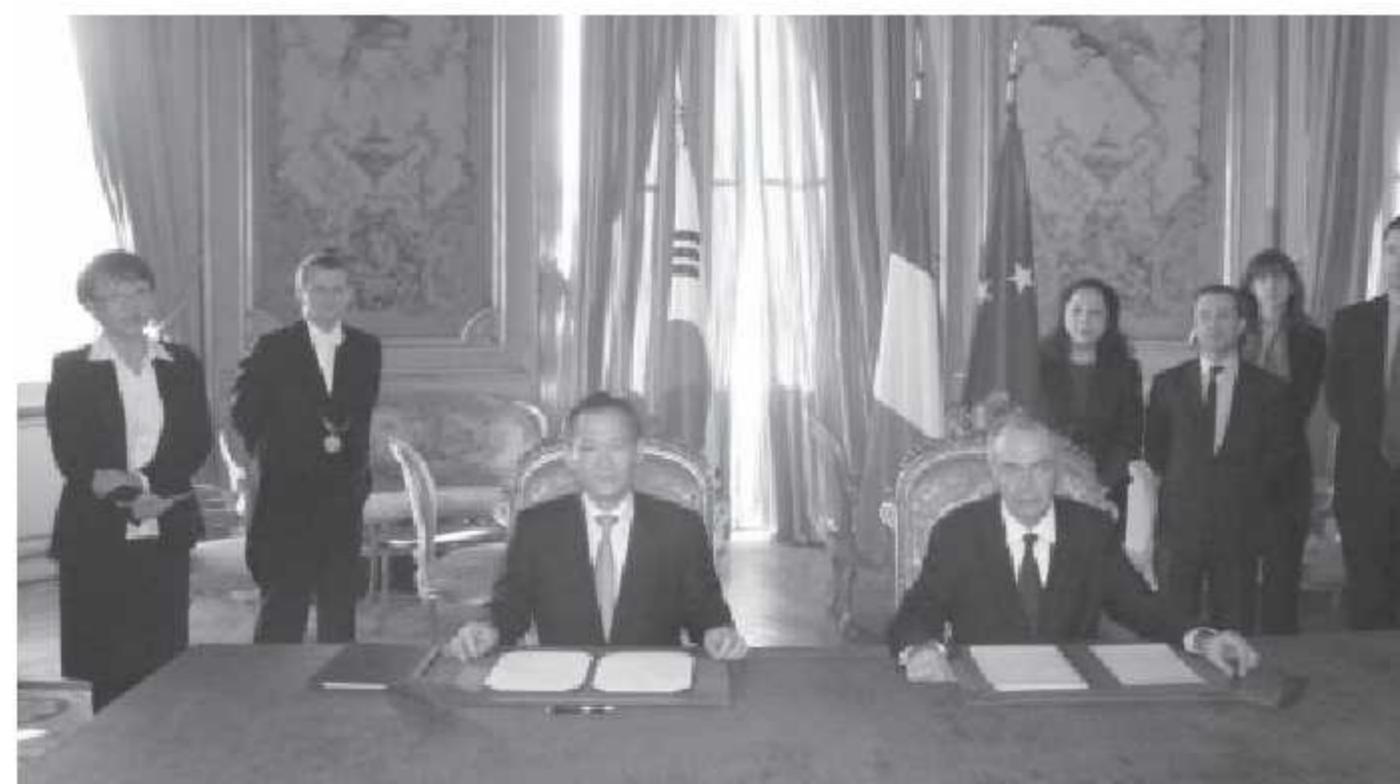
- 1985년 모교 불어교육과 졸업
- 1992년 프랑스 강대학교 불문학 박사
- 1997년 국제관계전문가 공채3기로 외교부 입부
- 2011~2013년 외교부 공보과장
- 2013~2015년 주애틀랜타총영사관(부총영사)
- 2015~현재 주 알제리대사관 공사참사관
- 저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외교관 엄마의 떠돌이 육아』

외교관은 언어 이전에 문화를 이해해야

프랑스 유학 시절 불문학으로 박사를 받은 유동창이 어떻게 외교관의 길로 들어섰는지 자못 궁금했다.

“막연한 희망직종이었는데 잠재의식 속에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예시가 있었던 듯해요. 물이 흐르듯 운명처럼 정해진 길을 오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IMF 이후에 채용제도가 없어졌지만 1997년 당시 외교부에서 국제관계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가 있어서 각 지역별 지역 연구가로 10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당시 불어권은 저와 남자 한 명이 채용되었지요. 저와 동기생인 다른 8명도 1년 안에 언어권 별로 발령이 나서 한국을 떠났지만 본부에 불어전공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남아서 세계정상회담이나 그 외에 유럽 국빈 방한 시 대통령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덕택에 프랑스 문화 전반과 예술에



2011년 2월 정부간 합의문 서명식에서(가장 왼쪽이 유동창)

대한 관심,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외교관 생활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문화를 모르고는 그 언어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책으로 배우는 불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와 문학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익히고 그들과 섞일 수 있어야만 자연스러운 언어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유동창은 요즘 우리나라의 위상이 격상했음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국제무대에 한국인이 입후보할 때마다 거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젊은이들도 많고, 한국 영화 팬들도 어마어마 합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받겠다는 의지도 상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교관들이 해외근무를 나가면 각자 알아서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제가 외교관 생활을 시작할 시기만 해도 한국 외교관한테 집을 빌려주기 싫어하는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합니다. 가장 신뢰받는 국가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특히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외국인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여성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일선 외교관으로서 유동창은 잦은 야근과 시도 때도 없는 출장, 그리고 임지의 변화 등 고초가 만만치 않다. 가족과의 삶을 조화롭게 병행해야 하는 여성 외교관으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유동창에게도 일과 육아, 커리어와 가족의 삶을 아우르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

“엄마가 바쁘면 아이가 독립적으로 큅니다. 아이는 다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5년 애틀랜타 여성문학회 환송회(윗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제 딸들을 키우는 동안 제가 출근하기 바빠 아침에 아침밥을 챙겨준 적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먹고 학교에 가는 것이 자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컸습니다.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주세요. 그만큼 엄마가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엄마 자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감 있고 자기 일을 잘 하는 엄마를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아이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엄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은 단호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외교관의 대표성을 지닌 유동창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한국 여성들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올바르고 전문적인 공직자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유동창은 이화 동창들에게 주체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기를 당부한다.

“스스로 뚫고 개척하는 끈기와 도전정신이 있다면 해내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와 견주어도 당당한 이화인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알제리 주재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 중인 유동창,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외교관으로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그녀의 여정에 박수를 보낸다.

글·전세영(사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사회과학대학

회장__김미령(신방 69)

학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사회과학대학 동창회는 2015년 11월 4일(수) 함인희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전공 주임교수들과 함께 모교 진관 휴게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함인희 학장이 초청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 부학장을 비롯, 최윤정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장 등 9명의 교수와 이양준(정외 70) 고문을 포함한 사회과학대 각 과 동창회장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령 동창회장은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아름다운 모교로 초대해준 함 학장에게 감사하며 모교의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창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의 발전적 변화를 설명한 함인희 학장은 재학생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무급으로 실습하며 학점을 인정받는)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과 업체들을 소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사회과학대학 설립 20주

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와 각종 행사를 위해 동창들의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말했다.

각 과 동창회장들은 오찬을 나누며, 각 학과마다 특색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동창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서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는 증서를 만들어 전달식을 하며, 4학년 대표와의 만남을 정례화하여 동창회를 알리고, 졸업 후에 자연스럽게 동창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자연과학대학

회장__유영숙(화학 77)

가을 야유회와 동창회 총회

2015년 10월 19일(월), 충남 아산 지역으로 자연과학대 동창들이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이번 가을 야유회에서는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미뤄진 동창회 총회가 함께 열려, 자연과학대 동창들에게는 더욱 의미있는 가을 야유회였다. 봉곡사에 들려 천년 소나무 숲길을 가볍게 산책했고, 외암리 민속마을을 거닐면서 1년 만에 다시 만난 동창들과 도란도란 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일정인 아산 공세리 성당에서 역대 총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82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학대 동창회 총회가 열렸다. 가을의 절정기에 자연과학대 동창회의 선배들과 미소 가득한 하루를



함인희 학장 초대로 열린 사회과학대학 동창회장단 간담회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가을 야유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준 유영숙 동창회장과 임원진, 또한 함께한 자연과학대 동창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의 만남을 기약했다.

2015년 10월 26일(월) 자연과학대 동창회장배 골프 대회가 양지CC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유영숙 회장을 비롯한 각과 동창회장의 후원과 회원들의 풍성한 지원으로 30여 명의 자연과학대 동창들이 함께하였다. 자연과학대 골프대회는 8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음악대학

회장_임진(작곡 72)

창립 90주년 기념 대음악회 개최

모교 음악대학이 창립 9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11월 11일(수) 모교 대강당에서 ‘Beyond the First: 최초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대음악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화국악양상불과 이화국악관현악단이 이끄는 관악영산회상, 민요연곡, 산조합주 공연이 진행되어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또한 ‘Beyond the First: 최초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영상을 감상하며 대한민국 음악 역사를 써내려간 이화 출신 음악인들의 활약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음대 관현악단(지휘: 관현악전공 성기선 교수), 음대 합창단(지휘: 성악전공 박신화 교수), 음대 졸업생 합창단 ‘이음회’(단장 이선희, 성악 76)의 <카르미나 부라나>가 연주되었다. 200여 명의 음대 재학생과 동창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성악전공), 음대 합창단이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며 감동적인 화합의 무대를 선사했다.

함영림 음대 학장은 “1925년 국내 최초로 음악과를 설립하며 한국의 음악 교육을 선도해온 이화여대 음대의 저력은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교수들의 헌신, 동창들의 아낌없는 후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음대 학생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대학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대 90주년 기념 음악회

사범대학

회장_신경희(수교 77)

‘이화교원교육 100주년’ 기념식 개최

사범대학과 사범대 동창회는 ‘이화교원교육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11월 27일(금) 사범대학 교육관에서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경희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신경희 사대동창회장을 비롯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 전·현직 교수, 동창 등이 참석하였다.



이화교원교육 100주년 기념식에 모인 사범대 명예교수, 교수, 동창들

김성원 학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원교육 100년을 통해 이룩한 주요 성과를 제시하면서 세계 유수 대학과의 연계와 진일보하고 있는 미래 사범대학의 비전을 소개하였다. 최경희 총장은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이화교원교육의 역사 100년을 축하하면서 현재 사범대학 최고의 위상과 교육의 수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세계를 향한 교육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였다.

신경희 사대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이화는 전 세계에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친란한 교원교육 100년의 역사를 이루어냈으며, 오늘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혁신적 시작의 원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범대학 발전에 기여한 안인희(교육

49), 이은화(교육 59), 김태련(교육 60), 강순자(과교 66) 명예교수와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고 사범대학 동창들의 축가가 이어졌으며, 글로벌 교원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100년 전 어린이 16명을 가르친 것이 인연이 되어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유치원 사범과를 창설한 것이 이화교원교육의 시작이었다. 이후 1951년 전쟁 중임에도 한국 최초의 사립 사범대학을 설립하였고, 명실공히 초·중등 전 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고등교육의 모델이 되어왔다. 현재까지 2만 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사범대학은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4년 동안 교육부의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 지원사업의 최대 규모 수혜기관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발과 선진화 모델 연구를 진행하였다.

간호대학

회장_김진향(간호 73)

이화 간호대학 단합대회 개최

2015년 10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이화 간호대학 단합대회가 열려, 3회부터 52회까지 동창총



이화간호동창 10월 단합대회

37명이 참석하였다. 그중 미국에서 참석한 10회 최유식, 13회 이성애, 15회 김숙현 동창이 함께한 가운데 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 1박 2일간의 여정을 함께 하며 동창 간의 깊은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은 전주 한옥마을과 동문예술거리를 둘러보고, 둘째 날은 전주 치명자산과 덕진공원, 그리고 군산의 철새 도래지와 새만금방조제를 관광하며 가을날의 정취를 함께 나누었다.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애교심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약학대학

회장__박하영(약학 77)

약학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개최

국내 최초의 4년제 약대인 모교 약학대학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11월 4일(수)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ECC 아심봉홀 및 ECC 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1부 심포지엄, 제2부 기념식, 제3부 이약인의 밤으로 구성되었다.

이화 약대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 '바이오·제약의 글로벌 동향'에는 황정주(제약 82,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박사), 류은주(약학 91, 화이자 본사 마케팅 부장), 박안숙(제약 91,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 이사) 동창이 발표에 나섰다. '약사의 리더십과 뉴페러다임' 세션에는 서정숙(약학 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최미영(약학 98, 서울시 서초구 약사회장), 김정미(약학 83, 삼성서울병원 약제팀장) 동창이 연사로 나섰다. '융합 약학연구의 최근 진보'를 주제로 한 세션에는 양현옥(제약 82, KIST 천연물융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천혜경(약학 85, 가천대 의대 교수), 강혜영(약학 87, 연대 약대 교수), 박윤정(제약 93,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



약학대학 창립 70주년 기념식

수) 동창이 발제자로 나섰다. '산관학협동과 약학계의 비전'을 주제로 한 세션에는 이선희(제약 8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장), 조명선(약학 81,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 김은미(약학 8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유희원(제약 87, 부광약품 사장) 동창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승진 약학대학장은 "앞으로도 세계로 도약하는 이화 약대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박하영 약대 동창회장은 글로벌 약학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하였고, 이에 약대는 동창들의 헌신과 후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모교 약학대학은 1945년 문을 연 이래 8500여 명의 여성 약학도를 배출했으며, 현재 30명의 우수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한 총 700여 명의 재학생이 함께하는 약학대학으로 성장했다.

한편 11월 7일(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화여대 약학대학 전국개국동문회 제35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정태원(약학 78)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이화 약대 동창회는 11월 26일(목) 롯데월드호텔에서 제52회 정기총회 및 16회 졸업 50주년 축하식을 가지고 제30대 동창회장에 박하영 동창을 임명하였고, 부회장에 강옥수(제약 76), 이미애(약학 79) 동창, 감사에는 정용희(약학 75), 박성순(약학 75) 동창을 선임하였다.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영어영문학과

회장__이정숙(77)

영학회 추계강좌 개최

2015년 영학회 추계강좌가 2015년 10월 23일(금) 모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90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혜정(72)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추계강좌는 70기 성혜옥 동창의 기도에 이어 이정숙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29일(금) 엘타워에서 열린 ‘영학회의 밤’에서 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61기 김영자 동창과 김영순 동창이 각각 1억원을 기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의 특강이 있었다.



2015 영학회 추계강좌

불어불문학과

회장__마송민(75)

재학생들의 원어 뮤지컬 공연 열려

2015년 10월 2일(금), 3일(토) 저녁 7시 모교 생



이화인의 밤에 모인 불문과 동창들

활환경대학 소극장에서 불어불문학과 재학생 원어공연학회 ‘앙상블(Ensemble)’의 원어 뮤지컬 〈Footloose〉 공연이 열렸다. 마송민 회장과 한정숙(75) 감사가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였다.

11월 18일(수) 추수감사 친양예배 시간에 불문학과 합창단 ‘아미합창단’과 ‘앙상블’이 참가하였다. ‘아미합창단’은 공연에 참가한 총 다섯 팀 중에서 단독 수상으로 〈사랑〉상을 받았다. 친양예배에 참가한 다섯 공연 팀 중에 두 팀이 불문과 팀이었다는 사실은 이화대 불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독어독문과

회장__이정화(74)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2015년 11월 19일(목)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3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민숙(71) 이대 교



독문과 송년모임

수의 ‘독일 국가(國歌)’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사학과

회장__한혜련(75)

간사회 및 가을 정기 답사 다녀와

2015년 9월 24일(목)과 11월 26일(목) 케세이호에서 간사회를 열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 보고와 앞으로의 동창회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선후배 간의 유대를 돋독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10월 22일(목)에는 가을 정기 답사로 강원도 홍천의 수타사와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을 답사했다.



사학과 가을 정기답사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회장__석영인(77)

제5회 박물관 투어

2015년 9월 9일(수)에 양주시립 장욱진박물관으

로 다섯 번째 박물관 투어를 떠났다. 이번 나들이에서는 장욱진 화백의 큰딸 장경수(화학 67) 박물관장으로부터 직접 장 화백의 가족사와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다.

9월 21일(월) 동창회가 주관한 두 번째 취업간담회가 있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방송과 언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을 초빙하여 재학생들에게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 인생 경험 등을 들려주는 소중한 자리였다.

2015년 11월 16일(월) 리베라 호텔 베르사이유 홀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하였다. ‘사상 초유 신방과 송년모임’을 주제로 처음 열린 송년회는 130명이 넘는 동창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송년회는 졸업 5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한 동창들의 홈커밍 파티를 겸하여 열렸다.



신방과 제5회 박물관 투어

사회학과

회장__김자혜(74)

사회학의 밤 행사에서 장학기금 전달

2015년 10월 27일(화) 학계, 언론계, 정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동창 30여 명이 종로 달개비에서 만나 향후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모임을 가졌다.

11월 5일(목) 모교 ECC 이삼봉 홀에서 열린 ‘사회



사회학과 동창회 장학기금 전달식

학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5,000만원을 사회학과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관현악과

회장__김정미(90)

음대 창립 90주년 기념 대음악회 참여

2015년 11월 11일(수)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음악대학 창립 90주년 기념 대음악회에서 관현악과 오케스트라(성기선 교수 지휘)가 음대 합창단, 음대 졸업생 합창단 '이음회'와 함께 칼 오르프의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를 연주하였다.



음대 창립 90주년 기념 대음악회에 참여한 관현악과 오케스트라

종교음악과

회장__최은희(81)

나눔콘서트 개최

모교 음악대학 창립 9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건반악기전공 교수음악회 '나눔콘서트'가 2015년 10월 29일(목)과 30일(금) 양일에 걸쳐 음악관 김영의홀에서 개최되었다. 나눔콘서트의 첫째 날은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둘째 날은 피아노 연주회로 구성되었다. 모교 학생 누구나 연주회에 입장할 수 있었으며, 입장시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은 서울시 서대문구 미혼모 시설 '애란원'에 전액 기부되었다.

29일에는 건반악기과 교수 박소현(99) 동창과 강사 박옥주(95), 김지연(98) 동창, 문병석 강사가 연주를 했다. 30일에는 건반악기과 함영림(피아노 80), 김정은, 김원, 정윤보, 피오트르 쿠프카(Kupka Piotr) 교수가 연주를 했다.

콘서트를 관람한 재학생들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처음으로 들어 새로웠다"며 파이프오르간의 웅장함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



나눔콘서트 개최, 파이프오르간 연주 선보여

한국음악과

회장__최혜정(90)

이화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열려

2015년 12월 3일(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화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곽은아 교수, 85)의 창단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창단연주회가 개최되었



이화국악관현악 창단 연주회

다. 이화국악관현악단은 모교 졸업생들이 모여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뭉친 악단으로, ‘한 국음악의 아름다움, 이화의 꽃으로 피어나다’를 모 토로 창설됐다.

동양화과

회장_이숙진(85)

제34회 채연전 개최

동양화과 동문전인 채연전이 ‘동행, 성찰적 만남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2015년 10월 19(월)부터 28일 (수)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총 85명의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원문자(66) 명예교수, 이신호(72) 동창, 김귀주(74), 정선진(74), 함순옥(74), 권 은희(76) 전 동창회장들과 김보희(74), 이종목, 서은 애(93), 이기영 교수가 참석했다. 한편 제34회 채연



채연전에 참여한 동양학과 동창들

상은 이은경(87), 이승은(89) 동창이 수상했다.

11월 24일(화)부터 29(일)까지 열린 학부 졸업전 시에 동창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예비 동창이 됨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축하금을 전달하였다.

조소과

회장_고혜숙(77)

예술작품 통해 사회에 기여

2015년 10월 23일(금)부터 11월 3일(화)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멤(MEME)에서 조소과 동창회인 이화조각회가 제32회 이화조각전 ‘다름이 있어 아름답다’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이화조각회는 전시 작품 판매 수익금 중 950만원을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후원하기 위해 지구촌 사랑나눔에서 운영하는 지구촌국제학교에 기부하기로 하고, 11월 23일(월) 지구촌사랑나눔센터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화조각회 동창들

생활미술과

회장_윤자윤(85)

다양한 전시, 디자인 페어의 기획 및 참여

디자인학부 동창 교수들은 국제적 전시와 디자인



도쿄 디자이너 위크

페어의 기획 및 참여를 통해 모교 학생들의 작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5년 10월 24일(토)부터 11월 2일(월)까지 도쿄 디자이너위크에 김수정(89)·박수진(99) 교수, 10월 15일(목)부터 11월 13일(금)까지 광주비엔날레에 최유미(85)·유현정(91)·최정아(96) 교수, 11월 11일(수)부터 15일(일)까지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에 최유미·유현정 교수가 기획 및 참여하였다.

유아교육과 회장_장태옥(87)

유아교육과 100주년 기념식

2015년 11월 7일(토) 오전 11시 모교 대학교회에서 유아교육과 창립 100주년 1부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김희진(84)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홍용희(78) 학과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최경희 총장, 김성원 사범대 학장,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은혜(83) 교수의 학과연혁, ‘백 년을 딛고, 천 년을 날자’ 영상, 이은화(59) 퇴임교수의 ‘유아교육과 100년의 발자취와 21세기 비전’ 특강에 이어 이상금(55), 이정환(55), 이은화(59), 이경우(60), 이기숙(72) 퇴임교수에게 공로패가 수여되고, 유아교육과

동창회 전·현 회장 정주자(62), 류지후(63), 김영주(71), 이순례(71), 박혜경(72), 임희옥(76), 장태옥(87) 동창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유아교육과 장학금 기금전달에 이어, 음대 관현악단의 축주와 교가제창, 양명수 교목실장의 축도로 1부 기념식이 마무리되었다.

엄정애(88) 교수의 사회로 ECC 이삼봉홀과 극장홀에서 진행된 2부 오찬에 이어 3부 동창회 행사는 박희경(88)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태옥 동창회장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유아교육과 동창회 100년의 발자취 영상을 보았고, 대학 교수, 원장, 장학사 등 유아교육 현장 곳곳에서 기량을 펼치고 있는 동창들의 소식을 나누었다. 행운권 추첨과 간단한 레크레이션, 기념촬영 및 기념품 증정을 끝으로 3부 동창회 기념행사가 막을 내렸다.

유아교육과 창립 100주년 행사는 유아교육의뿌리를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으며, 많은 선후배 동창들의 참여로 화합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유아교육과 100주년 기념식

보건교육과 회장_고효선(79)

이화수목원 탐방

이대 사대 회장단 9명이 2015년 7월 29일(수) 이



이화수목원 팀방을 다녀온 사대 회장단

화수목원 팀방을 떠났다. 역대 총장, 스승이 잠들어 계신 곳에서 추모예배를 하고, 졸업 동창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자리였다.

11월 30일(월) 이화인의 밤에 융합보건학과 동창회가 참여하였으며, 12월 3일(목) 이화가족 성탄예배에 현금위원으로 참석하여 봉사를 하였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이화 가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진하게 감동으로 밀려온 아름다운 예배였다.

경영학과

회장__서지희(85)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2015년 11월 14일(토) 예술의 전당 앞 라비타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1부는 황영미(21



경영학과 정기총회 및 송년회

기) 동창의 사회로 동창회 동정과 소개, 식사와 민트리오의 흥겨운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이어 조아름(49기) 동창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재학생 대표들의 찬조출연으로 푸릇푸릇한 청춘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70대 2기 선배들부터 20대 초반 재학생 후배들까지 함께한 이날의 송년회는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이화경영의 DNA를 직접 느끼고 새롭게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지희(18기) 회장 및 임혜란(11기) 경영학회장을 위시한 동창회 임원들은 지난 1년간의 동창회 활동 보고와 더불어 ‘이화인의 밤’, ‘메시아 발레공연’, ‘동창의 날’ 행사와 ‘홈커밍데이’ 진행과 관련하여 동창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하였다.

식품영양학과

회장__최수주(75)

학과 창립 50주년 기념동창회 안내

1929년 한국 최초의 가정학 교육기관으로 모교에 가사과가 설립되었고, 1965년에 식품영양학과로 탄생해서 2015년 50주년(가정과 86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여 학과 창립 50주년 기념동창회를 2016년 2월 23일(화)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가진다.

기념식 전에 원하는 동창들을 위한 학교 투어(4시부터 5시까지)도 계획되어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신산업융합대학 소속으로 식품영양학과의 발전을 기원하며 동창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일시: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6시

장소: 이대 ECC 이삼봉 홀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남가주 지회

회장 — 장경해(피아노 75)

총회에 최다 인원 참석해

한가위 명절을 기해 2015년 10월 3일(토) 100여 명의 선후배 동창과 가족들이 Buena Park의 Ralph Clark Regional Park에서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었다. 10월 19일(월)에 열린 남가주 지회 이사회에는 18명의 이사가 참석해 애틀랜타 총회에 대해서 논의하고 2016년 임원단을 선출하여, 회장에 장경해 동창, 이사장에 장계원(문정 76) 동창, 신임 이사에 이정현(문정 76) 동창을 선출하였다.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열린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35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모든 지회中最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텔런트 쇼에서는 30여 동창들이 윤주원(교육 63) 동창의 작품을 입고 화려한 니트 패션쇼를 펼쳤다.

11월 13일(금)에는 ‘남가주 동창회 여름학교 장학 기금’ 설립을 위해 지난 10년간 모은 기금을 이화

여자대학교 국제재단에 기증했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모교 Summer school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미국 정규 대학의 대학생으로 제한되며, 남가주 거주 학생을 우대한다. 이 신규 장학 기금이 남가주 지회가 후원하는 기존의 두 장학금(동창자녀 장학금, 모교 재학생 장학금)과 더불어 모교 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가주 지회는 모교 기숙사 신축기금으로 2만 달러를 약정하고 모금 중이며, 현재 모금액은 1만 5,500달러이다.

뉴욕 지회

회장 — 김기령(영문 81)

뉴욕 지부 이화연례만찬 열어

2015년 9월 정기모임이 맨해튼에서 열려, 연례만찬, 모교 기숙사 신축 기금 모금,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가 및 텔런트쇼의 준비 등을 의논하였다.

10월 17일(토), 북부 뉴저지 모임을 조문경(영문 86) 동창의 사무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혜원(약학 50) 동창의 ‘우리 생체의 통신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다. 10월 26일(월) 중부 뉴저지 모임을 유덕형(약학 72) 동창의 집에서 가졌으며, 부군 서석윤 박사가 아인슈타인의 분자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10월 27일(화) 이화골프대회가 롱아일랜드 소재 Lake Success 골프장에서 열렸다. 저녁 식사 및 시상식은 최성남(약학 70) 이사장 집에서 하였다.



애틀랜타 총회에 참가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뉴욕 동창 15명이 참가하여 모교의 최경희 총장과 더불어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텔런트쇼에서는 3등상을 수상했다. 11월 4일(수)부터 8일(일)까지 미대 졸업생들의 모임인 녹미회(회장 한나민, 서양 73)가 뉴저지 Teaneck 소재 나비박물관에서 연례전시회를 열었다. 11월 8일(일) 뉴욕 지구 이화연례만찬이 뉴저지 소재 Doubletree Hotel에서 열렸다. 장학금 수여 및 동창회 활동 소개가 있었고, 만찬 후에 텔런트쇼, 풍선 터트리기, 라인댄스 등을 하였다.



선비 문화의 본류 안동을 찾은 대구 동창들



뉴욕 지구 연례만찬에 참석한 동창들

대구 지회

회장__최정숙(영문 81)

선비문화의 본류 안동으로 여행

대구의 이화인들이 안동에 다녀왔다. 이화의 흰 배꽃처럼 어느새 흰머리가 성긋성긋한 동창들의 모습이 그날따라 단풍과 묘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 다리라는 월령교를 걸으며 어느 순간 조용히 지나온 삶을 반추하는 동창들의 모습들이 느껴졌다.

이어 병산서원과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발길을 옮겨 가슴에는 가을을 담고, 머리에는 지적 포만감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북가주 지회

회장__제갈숙경(관현 79)

한국의 날 문화예술축제 개최

2015년 9월 5일(토) 산호세의 한식당 '산장'에서 32명의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가졌다. 김지연(성악 91) 동창의 지도로 애틀랜타 총회에서 부를 합창 연습과 김경자(가정 59) 동창의 종이접기 공예 강습이 있었다. 9월 20일(일)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에서 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제7회 '한국의 날 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되었는데, 한식요리연구가인 장선용(국문 63) 동창의 '추석 상차림 시연과 시식행사'가 함께 있었다.

10월 3일(토) 오클랜드의 고기타임에서 30여 명의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가졌다. 김영자(약학 57) 동창이 모교 기숙사 신축 기금 모금에 관한 설명과 모



장선용 동창의 추석 상차림 시연과 시식 행사

금 현황을 발표하였고, 애틀랜타 총회에서 할 뮤지컬 연습이 있었다.

11월 7일(토) 뉴욕에 있는 니조캐슬에서 27명의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가졌다. 애틀랜타 총회에 다녀온 이야기와 텔린트쇼에서 1등을 한 뮤지컬 <팥쥐가 기가 막혀>의 동영상을 감상했다. 상금 300달러는 모교 기숙사 신축 기금에 넣기로 결정했다. 식사 후 한의사 양승희(시학 73) 동창의 한방강의가 있었다.

북텍사스 지회

회장__강정숙(심리 63)

정기총회와 신임 회장 선출

2015년 5월 31일(일) 동창회 및 정기총회가 로얄 레인에 위치한 수라식당에서 열렸다. 모교 창립기념 일인 5월 마지막 날에 모인 동창들은 이화의 추억을 되새겼다.

김미리(문정 83) 전임 회장은 “소천하신 장신호 (가정 50) 선배를 비롯해 편찮으신 70대 선배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동창회를 시작했다. 최고령인 최영방(기악 49) 동창과 멕시코 선교사역 중인 이경화(무용 76) 동창이 동영상 인사 등으로 동창 소식을 전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동창회 회계보고 후 강정숙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교가를 함께 부르며 동창회를 마쳤다.



북텍사스 지회의 동창회 및 정기총회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__정선주(성악 68)

모교와 지역 발전에 기쁘게 앞장서

세이트루이스 동창회는 2017년이면 발족한 지 20년이 된다. 우리 지회는 최경선(영문 61) 이사장, 정선주(성악 68) 회장, 이수자(가정 63) 회계, 최길자(화학 65) 서기의 회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달 ‘진선미(계)’ 모임과 1년에 4번의 정기모임을 가진다. 회비는 60달러(이사 100달러, 학생 30달러)이며, 이중 28달러는 모교 동창회에 동창회비로 보낸다.

2015년 7월 ‘애리조나 주 피닉스’로 이사한 유임순(성악 55입학) 동창이 이곳을 들르게 되어 환영 모임이 있었다.

10월 정기모임은 최길자(화학 65) 동창의 기도로 시작했고, 서기 보고, 회계 보고가 있었다. 모국 방문 중인 한정자(교육 63) 동창, 독일 여행 중인 양혜자(교심 74) 동창, 이집트 여행 중인 최혜영(생미 86) 동창의 소식을 나누고,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진 순서로 김혜영(간호 79) 동창의 ‘스마트폰’ 특별강의가 있었다.

우리 지회는 친교 모임 외에 독서모임도 있고, 모교를 돋는 한편 세인트루이스 지역 사회 발전에도 성의를 보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에 새로 시작한 ‘케이트웨이코리아재단’에 적극 지원하고, 한인회장학기금 ‘선배라면’과 ‘이화 130주년 기념 백만불 해외동창기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올해로 500달러). 또 동창 개인들이 해외 동창 기금에 협조하고 있으며, 모교 동창회에 해마다 동창회비를 보내고 (올해 364달러), 모교 선교부에 해마다 현금(100달러)을 하고 있다. 이화국제재단에 설립한 세인트루이스 장학금은 올해만 500달러가 모금되어 1만 3,000달러 이상의 액수가 모였다.

우리 지회는 작은 지회지만 모교가 날로 발전하는 데 성의를 다하고 있다. 모교 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세계 속의 이화여대가 되는 날까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시드니 지회

회장__김봉희(서양 74)

연말 모임을 ‘양자강’ 중식당에서

2015년 11월 14일(토) 이스트우드에 있는 ‘양자강’ 중식당에 21명의 동창들이 모여 2015년의 마지막 모임을 가졌다. 연말 모임이라 바쁜 중에도 많은 동창들이 참석했다. 모국의 어느 중식당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맛있는 음식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한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모임에는 특히 호주의 제주도라 일컫는 태즈mania의 호바트에 거주하는 윤세순(식영 72) 동창이 참석해 모두들 반갑게 맞았다.



싱가포르 지회의 직장인 동창들이 첫 모임을 축하하며 건배하고 있다

서 직장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첫 모임을 2015년 10월 15일(목) 저녁 7시 Ricciotti 레스토랑에서 갖게 되었다. 첫 모임이었지만 뜨거운 호응으로 20명이 넘는 직장인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직장인 저녁모임은 정지은(정외 98) 동창이 총무를 맡게 되었다. 6월과 12월에 열리는 전체 동창의 저녁 모임에서는 낮 모임 동창들과 직장인 동창들이 다같이 모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직장인 동창회 시도에 힘입어 좀 더 많은 동창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5년 연말 모임에 참석한 시드니 지회 동창들

싱가포르 지회

회장__조혜숙(영문 89)

새롭게 출범하는 직장인 모임

동창회 모임을 주로 낮 시간에 가져왔던 싱가포르 지회에서는 직장인들의 동창회를 짹수 달 저녁 시간에 따로 가져서 ‘이대 동창회’라는 울타리 안에

애틀랜타 지회

회장__김정희(약학 79)

EWHA ATLANTA 2015 “이화, 아름다운 삶”

2015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및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회가 ‘이화, 아름다운 삶’ 이란 주제로 2015년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애틀랜타 지회 주최로 Crown Plaza Atlanta Perimeter at Ravinia에서 열렸다.

우선 10월 29일(목) 애틀랜타 지회에서 마련한 도시락을 먹으며 각 지회에서 모인 동창들이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다. 10월 30일(금)에는 애틀랜타 명소 1일 관광이 있었다. 스톤마운틴에 올라간 동창들이 감탄하며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합창하여 그곳에 온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다. 또한 김영례(교심

79), 정호문(불문 62), 정소영(영문 62), 최인경(교심 89) 동창의 특강이 열렸다.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린 '총장님과의 만찬'은 홍혜진(정외 93)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모교의 최경희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오진경 대외협력처장 등 모교 관계자, Marc S.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과 임원들, 박병진 조지아 주 하원의원, Yonni Kim-Kowin Atlanta 회장, 오원화 경기여고 동창회장 등 2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교가 제창, 성정순(체육 49) 전 총동창회 고문의 기도, 박병진 의원의 축사와 Yonni Kim 회장의 조지아 주지사 Nathan Deal의 축사 대독이 있었고, 김정희 회장의 환영사,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인사, 국제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소프라노 전주원(성악 95) 동창의 축가 후 최경희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Bishop Rader 전 국제재단 이사장의 식사 기도 후 단체 촬영을 하고, 김정희 회장의 각 지회 소개와 '이화, 아름다운 삶'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2부는 김경원(기관 81), 강지연(보교 97) 동창의 사회로 시작하여 오진경 대외협력처장의 학교 소식과 김정희 회장의 '기숙사 신축 건립기금 모금현황' 발표가 있었다. 뒤이어 김연희(무용 86) 동창의 축하 무용과 각 지회의 '탤런트쇼'로 이어졌다. 애틀랜타는 난타 <꿍따리사바라>로 참가해 많은 찬사를 받았으나 주최 측이라 등수에선 제외되었다. 경품 행

사로 유찬희(신방 78) 동창의 티파니 솔더백, 정호문 동창의 그림, 코치 지갑, 진주 귀걸이, 현금 100달러 등이 기증되었다.

10월 31일(토) 오전에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는 15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애틀랜타 명소 1일 관광, 최인경 동창의 미술 특강, 심성술(김영례 동창 부군) 에모리 의대 교수의 세미나가 열렸고, 오후 6시 30분부터 46년간 이어져 온 이화국제재단과 함께하는 '연례 대만찬'이 열렸다. 최경희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모교 관계자들과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 외 이사들이 함께 하였고, 유복렬(불어교육 85) 주 알제리대사관 공사 참사관(전 애틀랜타 부총영사)의 '외교관의 삶, 이화인의 삶' 기조 연설이 있었다. 강창석 서울대 동창회장, 김명숙 숙명여대 동창회장, 박경자 나라사랑어머니회 회장, 김형률 한인회 이사장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다. 김정희 회장은 '2015년도 기숙사 신축건립 기금 기부 현황' 발표에 이어 '2015년도 기숙사 건립 후원금 21만 3,000달러 약정서'를 전달하였고, 이화국제재단 이사장도 2015년도 장학금 기금 3억원 약정서를 전달하였다.

축하 공연으로 이미애(성악 89) 동창의 축가, 지회연합회 합창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합창에 이어, 애틀랜타 지회 합창단은 <Try to Remember>, <가요 메들리>와 남편들과의 합창 <빈대떡 신사>를 불러 많은 갈채를 받았다. 1박 2일 여행팀의 친조 출연 댄스 후 이수완(무용 68) 동창의 장고춤 공연이 있었다. 뒤이어 2014년 총회에서 1등한 애틀랜타 지회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공연이 있었고, '김연희와 함께 하는 댄스'로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1월 1일(일) 오전 9시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부목사 김재홍 목사의 설교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 뒤, 2016년 휴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주최한 애틀랜타 지회

턴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동창 모두 즐거운 일정과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며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였고, 애틀랜타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고 기노라고 하였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만남, 아름다운 이화인들의 모습이었다.

워싱턴DC 지회

회장__김지완(문정 89)

라인댄스로 지회연합회 총회 텔런트쇼 4위

2015년 9~10월 이화와 인연이 깊은 조요성 박사가 3회에 걸쳐 아이폰 사용법 강좌를 진행하여 많은 동창들이 발전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최유정(무용 96) 동창의 기획 아래 진행된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가을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4위를 차지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10월 2일(금)에는 한미과학재단센터에서 강춘형(약학 65) 동창의 부군이자 포항공대 2대 총장을 역임한 장수영 박사가 역사 강의를 하였다.

10월 말에 애틀랜타에서 열린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가한 워싱턴DC 지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18명의 동창(사위 포함)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워싱턴DC 지회 역사상 가장 많은 동창이 참석한 것이다. 11월 6일(금)에는 노유정(영문 64) 동창의 피부 관리법 강좌가 있었다.

토론토 지회

회장__홍석미(영문 79)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뜻깊은 시간 보내

토론토 지회는 2015년 11월 22일(일)에 2015년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 동창과 배우자 등 161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연말 총회와 2016년도 신임회장 선출도 하였다. 디너와 함께 화음 동호회가 악기 연주와 노래로 파티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연극, 무용,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선배들이 많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연말파티를 개최한 �론토 지회

하와이 지회

회장__이혜련(영문 84)

하와이 대학교 간호대학에 꾸준히 장학금 수여

하와이 지회는 하와이 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9월 15일(화)에 하와이 대관계자들의 초청으로 간호대학을 방문한 동창들은 학교 시찰 및 장학금 수여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10월 6일(화)에는 하와이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한국의 도자기들을 한국어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단체로 감상하였다. 12월 4일(금)에 겨울 정기 동창회 모임이 시내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새 회장으로



겨울 정기 모임에 참석한 하와이 지회

이혜련 동창이, 부회장으로 홍승혜(사복 93) 동창이 선출되었다.

휴스턴 지회

회장__김명옥(경영 75)

신·구 회장직 인계

2015년 9월 모임을 정미선(수교 85) 동창의 집에

서 가졌다. 모임에서는 2016년 휴스턴에서 열리게 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현재 준비상황과 필요한 예산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고, 많은 동창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11월 중순에는 휴스턴 지회 총회가 열렸다. 지난 2년간 회장을 맡았던 백화정(심리 87) 동창에서 김명옥 동창으로 회장직 인계가 있었다. 한편 휴스턴 지회는 앞으로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이화걷기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정미선 동창 집에서 친교의 시간을 나눈 휴스턴 지회

동·창·근·황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육완순(체육 56)·정승희·하정애(무용 67)·김화숙·김복희(무용 71)·남정호·정귀인(무용 75) 동창 한국 1세대 현대무용가이자 전 모교 교수인 고 박외선 선생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공연 <참 인간, 참 춤>이 2015년 11월 2일(월) 모교 ECC 삼성홀에서 열렸다. 고 박외선 선생은 한국 현대무용의 산파라 불린다. 박 선생의 제자들인 육완순, 정승희, 하정애, 김화숙, 김복희, 남정호, 정귀인 동창이 스승의 삶과 예술 세계, 업적을 조명하고 대표작을 재현하였다.

송창주(가정 62) 동창

송창주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열사기념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송 동

창은 이준 열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헤이그를 찾은 한국해군 강감찬함에 올라 ‘1907년 헤이그에서의 한국독립운동과 이준 열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김은영(생미 64), 유중근(영문 67) 동창

서울무형문화재 매듭장이자 간송 C&D 대표 김은영 동창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유중근(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동창이 경기여고 동창회가 주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유 동창은 2015년 10월 29일(목)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이원영(생미 68) 동창

Bronx Botanical Garden의 수석 디자이너로 재직하면서 해온 작품들과 수상 작품들을 재현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

성기순(섬예 69) 동창

2015년 10월 24일(토)부터 11월 6일(금)까지 이웃돕기 기금 모금 소품전시 전시회를 Los Angeles Sun Gallery에서 열었다.



성기순 동창

장화인(교심 69) 동창

2015년 10월 14일(수) 뉴저지 드류 대학교에서 2015년 신학대학 특별봉사상(Distinguished Service Award)을 수상하였다. 장화인 동창은 아시안여성기독봉사센터(AWCA)를 설립 및 성장시켜 뉴욕·뉴저지 일원의 아시안 여성을 위한 봉사에 기여해 왔다.

강승애(서양 72) 동창

2015년 11월 25일(수)부터 12월 13일(일)까지 이브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강승애 동창

선재숙(의학 72) 동창

PVA(Paralyzed Veterans of America)에서 수여하는 2016 PVA Speedy Award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수상자이며, 시상식은 2016년 5월 21일(토) 70차 National PVA convention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재숙 동창



최금숙 동창

최금숙(법학 73) 동창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최금숙 동창이 2015년 10월 29일(목) 모교

대강당에서 '여성, 사회변혁을 이끌다'를 주제로 제50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혜은(사생 74) 동창

2015년 10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이코모스 연례총회에서 이혜은 동창이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110개 국가위원회와 28개 학술분과위원회를 대표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이혜은 동창

장남수(식영 74) 동창

2015년 11월 6일(금)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1회 캘리포니아아몬드협회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국내 영양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아몬드협회가 제정한 것이다.



장남수 동창

장필화(영문 74) 동창

장필화 동창이 소장으로 있는 모교 아시아여성학센터는 2015년 10월 27일(화)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주한노르웨이대사관 후원 아래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글로벌 시대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장필화 동창

강정윤(약학 75) 동창

제34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입선하였다.

손인숙(섬예 76) 동창

실그림 작가 손인숙 동창의 작품이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 국립 기메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이 특별 기획전은 2015년 9월 18일(금)부터 2016년 3월 16일(수)까지 열린다.



손인숙 동창

강종춘(신방 77)·김지현(교공 77)·이원영(가관 77)·최정인(간호 78) 동창

2015년 11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성북동 시메이갤러리에서 ‘빛으로 그린 사계’ 그룹 사진전을 이화여고 동기 김정숙, 이홍금, 최혜숙 씨와 함께 열었다. 수익은 전액 복지재단에 기부하였다.

최용순(서양 77) 동창

칠레 가톨릭대학교 아시아학센터 초청, 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2015년 11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최용순 동창

이제인(김민자, 피아노 78)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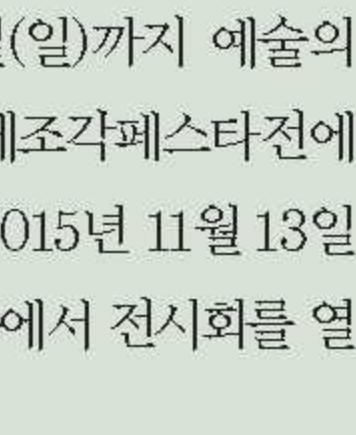
서울민화공모전에서 소나무와 두루미를 그려 넣은 작품으로 특선을 받아 추천작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제인 동창

김영란·김희경(조소 79)·최승애(조소 85)·호해란(조소 88)·김선영·김정연(조소 89)·김양선(조소 94)·백인정(조소 96) 동창

2015년 10월 12일(월)부터 18일(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조각페스타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호해란 동창은 2015년 11월 13일(금)부터 20일(금)까지 갤러리 한옥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신은혜(성악 79) 동창

성악가 신은혜 동창이 2015년 10월 17일(토) 서울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음악회를 열었다. 이 음악회는 신동창과 부군 박남진 씨가 5년에 한 번씩 여는 재능기부 부부 음악회이다.



신은혜 동창

김정미(관현 80)·계명선(피아노 85)·정호정(종음 91)·김내리(관현 93)·김문정(관현 94)·김은희(성악 95)·박지윤(관현 05) 동창

2015년 10월 14일(수) 모교 중강당에서 패컬티 눈 콘서트가 열렸다. 첫 순서로 계명선 동창이 리스트와 쇼팽을 연주하였으며, 뒤를 이어 정호정 동창의 반주에 맞춰 김은희 동창이 오페라 ‘파우스트’ 등 세 곡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김정미, 김내리, 김문정, 박지윤 동창이 현악사중주로 하이든을 연주하였다. 풍요롭고 다채로운 선율로 가을의 정취를 흡뻑 느낄 수 있는 콘서트였다.



계명선 동창

김혜경(사회 81) 동창

2015년 11월 21일(토)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 제31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김혜경 동창이 만장일치로 한국여성학회 제33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6년 12월부터 1년이다. 김 동창은 현재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혜경 동창

박애정(섬예 83) 동창

2015년 10월 20일(화)부터 31일(토)까지 서울 종로

구 인사동 선화랑에서 개인전 ‘Soft Sculpture 2015(Time Goes by...)’을 열었다. 박 동창은 설치미술가이자 섬유예술가로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애정 동창

이소현(특교 83) 동창

제4회 자폐인의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 전시회가 이화여대 ESTAR프로젝트와 특수교육연구소 주최로 2015년 12월 17일(목)부터 29일(화)까지 모교 ECC 이삼봉 홀에서 진행되었다. 모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동창은 디자인 기업 (주)오티스타를 설립, 자폐인의 재능 재활에 힘쓰고 있다.



이소현 동창

한영실(도예 83)·홍순정(도예 90)·이은미(도예 91) 동창 헤이리 포네티브스페이스에서 2015년 11월 7일(토)부터 11월 29일(일)까지 5th INTERSECT전시가 진행되었다. 한영실, 홍순정, 이은미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LIGHTNESS-가벼움’을 주제로 한 작업을 선보였다.

나진숙(조소 84) 동창

리앤박 갤러리에서 2015년 10월 8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전시회를 가졌다.

김홍식(서양 85) 동창

2015년 11월 18일(수)부터 12월 8일(화)까지 서울 성북구 ‘오래된 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손지애(정외 85) 동창

전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손지애 동창이 모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손 동창은 뉴욕타임스

와 CNN 서울 특파원 출신으로 청와대 해외홍보비서관을 거쳤으며, 아리랑국제방송을 퇴임한 후에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USC) 방문교수를 지냈다.



손지애 동창

남연숙(도예 86) 동창

남연숙 동창은 2015년 10월, 괌문화예술청의 달을 기념하며 GPO(괌 프리미엄 아울렛)와 CAHA에서 2번의 그룹전을 가졌다.



남연숙 동창

박정란(동양 86) 동창

박정란 동창의 작품이 ‘그 빛...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2015년 9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아름다운 행궁길갤러리, 9월 30일(수)부터 10월 6일(화)까지 갤러리 루벤, 10월 20일(화)부터 11월 1일(일)까지 갤러리 백희에서 연속 전시되었다.

윤경(서양 86) 동창

2015년 11월 17일(화)부터 12월 1일(화)까지 갤러리 비원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정명애(화학 86) 동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정명애 동창이 2015년 10월 1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취임하였다. 2년간 대통령의 think tank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명애 동창

홍현애(조소 86) 동창

홍현애 동창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아프리카 극빈 아동 돋기 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 순회전시회를 열었

다. 전시회는 2015년 10월 5일(월)부터 10일(토)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로비, 10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서울아산병원, 10월 24일(토)부터 29일(목)까지 서울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홍현애 동창

남주희(작곡 88) 동창

남주희 동창이 2015년 10월 24일(토) 강남 일지아트홀에서 ‘시니어 뮤직 페스티벌’을 열었다. 수익금은 국내 저소득층 아동돕기 운동 ‘위스타트’에 전액 기부했다. 남 동창은 남주희실용음악학원 프랜차이즈 대표로 있으며, 세광음악출판사와 삼호뮤직에서 피아노 교재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



남주희 동창

박은애(의학 88) 동창

극소저체중출생아(이른둥이)의 퇴원 후 치료·관리를 지원하는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가 2015년 10월 14일(수) 63빌딩 별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한·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장 이자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은애 동창이 ‘이른둥이 건강관리 도전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박은애 동창

이선희(의학 88) 동창

모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선희 동창이 2015년 11월 27일(금) 개최된 ‘한국병원경영학회 정기 이사회’에서 11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교수는 학회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대되어 이사회

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금)부터 학회를 이끌게 된다.

이수정(조소 88) 동창

2015년 10월 6일(화)부터 11일(일)까지 용인 포은아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승은(화학 88) 동창

Merck Korea의 전무로 재직 중인 이승은 동창이 2015년 9월부터 PM Display Materials 사업부의 Country Lead로 승진하여 사업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승은 동창

전경화(섬예 89) 동창

2015년 9월 9일(수)부터 13일(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Grand Palais)에서 개최된 프랑스 아트 공예 비엔날레 ‘REVELATIONS’에 초대되어 작품을 출품하였다.

원영은(조소 90) 동창

2015년 11월 18일(수)부터 24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50, 나의 창 밖으로 서다’ 개인전을 열었다.

김윤진(무용 92) 동창

2015년 9월 12일(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 춤꾼 ‘춤단’이 게릴라 춤판을 벌인 데 이어, 9월 19일(토)에는 서울 선유도공원에서 ‘서울무도회’를 열었다. 시민 춤꾼 ‘춤단’은 서울문화재단이 2013년 시작한 프로젝트로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교수인 김윤진 동창이 기획 감독을 맡고 있다.



김윤진 동창

심기남(의학 92)·송혜경(의학 97)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교수 심기남, 송혜경 동창의 연구팀이 최근 개최된 국제소화내시경학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건강한 한국인의 역류성 식도염의 추이: 단일기관의 4년간의 경험’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심 동창은 2015년 11월 27일(금)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위암에서 Helicobacter pylori CagA에 따른 RUNX3 불활성화와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관계’ 주제의 연구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은 전액 이화의료원 새 병원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심기남 동창



송혜경 동창

수상하였다. 이 동창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이번 학술상은 신경과학 분야의 세계적 전문학술지 《Neurology》에 논문을 게재한 공로로 수여되었다.

정진옥(성악 93) 동창

정진옥 동창이 단장으로 있는 ‘맥 키스오페라’가 2015년 10월 31일(토) 대전 계족산 황톳길 숲속 음악회장에서 2015년 숲속의 음악회 마지막 공연을 열었다. 오페라 ‘뻔뻔(fun fun)한 클래식’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에 공연을 하며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다.



정진옥 동창

박지윤(종음 94) 동창

2015년 11월 16일(월) 종교교회에서 오르간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박지윤 동창

이현정(도예 94) 동창

갤러리 플래닛 대표 이현정 동창이 2015년 10월 22일(목)부터 29일(목)까지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반얀트리 아트페어와 11월 25일(수)부터 30일(월)까지 홍익대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ART EDITION 2015에 참가하였다.



이현정 동창

조미현(섬예 94) 동창

현암사의 대표 조미현 동창은 2015년 11월 13일(금)부터 30일(월)까지 경기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현암사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현암사 70년, 책을 말하다’ 전시회를 열었다.



조미현 동창

이지언(정외 92) 동창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연구논문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논문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15년 11월 27일(금) 바비엥2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맹지은(동양 93) 동창

2015년 11월 23일(월)부터 12월 6일(일)까지 여니 갤러리에서 ‘낯선 그라움’ 전을 열었다.



이향운 동창

이향운(의학 93) 동창

이대목동병원 교수로 재직 중인 이향운 동창이 2015년 11월 6일(금) 개최된 2015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1년 동안 우수한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시상하는 ‘학술상’을

박옥주(종음 95) 동창

2015년 11월 13일(금)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에서 ‘그리는 소리 보이는 음악’ 연주회를 가졌다.

서선희(식영 97) 동창

모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서선희 동창이 세계적인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 월드』 2016년도판에 등재된다.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 월드』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로 매년 전세계적으로 5만 5000명을 선정하여 그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서선희 동창

정혜윤(동양 97) 동창

2015년 11월 3일(화)부터 8일(일)까지 ‘Garden of Life’라는 주제로 이화아트갤러리에서 전시하였다.

권오신(서양 98) 동창

2015년 9월 12일(토)부터 9월 23일(수)까지 유중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소은(사복 98)·정수정·최선영(사회복지대학원 13) 동창
2015년 11월 20일(금) 개최된 2015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제1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혜정(동양 98) 동창

2015년 9월 29일(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정부 청사갤러리에서 ‘자유롭게 노닐다’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열었다.

이사라(의학 99) 동창

2015년 11월 1일(일) 개최된 ‘제25차 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에서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에

재직 중인 이사라 동창이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 동창은 국립암센터 의공학연구과 김광기 박사팀과 함께 진행한 ‘복강 경하 자궁근종 절제술에서 3D 자궁근종 영상화 프로그램의 필 요성 및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사라 동창

김은애(법학 00) 동창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김은애 동창이 2015년 11월 7일(토)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젊은 생명윤리학술상’을 수상했다.

성인제(동양 00) 동창

영아트갤러리에서 2015년 11월 4일(수)부터 10일(화)까지 ‘심장에 편 꽃’ 초대전을 열었다.

윤진숙(동양 00) 동창

2015년 11월 10일(화)부터 21일(토)까지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전영리(동양 00) 동창

‘반복과 미묘한 차이—그리고 생성’이라는 주제로 2015년 9월 1일(화)부터 14일(월)까지 TWINCITY Namsan에서 전시하였다.



박성희 동창

박성희(성악 01) 동창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인 박성희 동창이 2015년 9월 30일(수)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독창회를 개최하였다.

이은(도예 01) 동창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통인회랑에서 2015

년 12월 1일(화)까지 초대전을 열었다.

강은희·민정은(성악 02)·박효진(피아노 07) 동창
Ewha Young Artist Recital을 2015년 9월 12일
(토) 맨해튼의 The National Opera America
Center에서 가졌다.

이애란(대학원 03) 동창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으
로 재직 중인 이애란 동창은 2015
년 11월 23일(월) 추수감사절에
주한 미2사단을 찾아 통일약과
1만 5000상자를 전달했다.



이애란 동창

박영경(동양 06) 동창

갤러리 그리다 기획공모로 2015년 10월 30일(금)부
터 11월 11일(수)까지 ‘지구라는 학교’ 전을 열었다.

손지영(정외 06) 동창

‘나고야의 정서상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15년 10월 6일(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Merak
홀에서 열렸다.

안효선·임주연(의직 07) 동창

안효선, 임주연 동창이 2015년 11월 21일(토) 성신여
대에서 열린 ‘2015년 (사)한국의상디자인학회 2차 학
술대회’ 및 11월 28일(토) 동서울대에서 열린 ‘2015
년 (사)한국패션디자인학회 추계 학술대회’의 포스
터발표 부문에서 각각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노지혜(산디 10)·권은주(물리 13) 동창

노지혜, 권은주 동창이 속한 또래미 팀이 2015년 11
월 26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농촌



노지혜·권은주 동창이 속한 또래미 팀

관광 앱(App) 창작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황서현(경제 10) 동창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설한 암호기술 전문가
양성과정에 황서현 동창이 선발되었다.

유현지(전자공학 14) 동창

2015년 11월 12일(목)부터 14일
(토)까지 경주현대호텔에서 열린
2015년 국제의용생체공학회 학
술대회(IBEC 2015)에서 전자공
학과 신경전자공학연구실 석박
통합과정 유현지 동창이 우수포
스터상을 수상했다.



유현지 동창

권정민(전자공학 15) 동창

권정민 동창이 2015년 11월 11일
(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
터(WISET)에서 주최하는 ‘공학
R&D 인재양성을 위한 젠더혁신
프로젝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권정민 동창

이예연(시디 15) 동창

이예연 동창이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 이해림
재학생(서양화과)과 직접 기획한 음반 <나의 서울
그리고 나의 버스>를 냈다.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15.1~2015.12 (가나다순 계재)

곽순영(무용 85)	2,000,000	박영숙(경영 74)	1,000,000	이미애(약학 79)	2,000,000
곽은아(한음 85)	2,000,000	박유나(도예 81)	1,000,000	이상희(유교 71)	1,000,000
구순옥(초교 85)	2,000,000	박정례(섬예 79)	1,000,000	이선주(성악 85)	2,000,000
권미경(교공 87)	1,000,000	박춘호(사회 70)	2,000,000	이선헤(식영 74)	1,000,000
권성희(법학 86)	1,000,000	박하영(약학 77)	1,000,000	이선희(식영 85)	2,000,000
금지현(정외 87)	1,000,000	박혜경(교육 77)	2,000,000	이순례(유교 71)	400,000
기영화(행정 85)	2,000,000	방혜성(영문 82)	1,000,000	이순영(경영 85)	3,000,000
김광옥(식영 75)	2,000,000	배혜화(불문 77)	1,000,000	이순재(의학 75)	1,000,000
김귀연(유교 71)	1,000,000	백옥경(사학 85)	2,000,000	이영란(체육 76)	1,000,000
김모란(사회 78)	2,000,000	봉지희(섬예 85)	2,000,000	이인숙(신방 85)	2,000,000
김미경(영문 85)	2,000,000	석정자(성악 67)	1,000,000	이재숙(도예 86)	1,000,000
김미순(기독 75)	1,000,000	설영자(의직 75)	1,000,000	이정표(교육 85)	2,000,000
김분래(제약 83)	2,000,000	성미숙(화학 85)	2,000,000	이정화(독문 74)	1,000,000
김성숙(독문 71)	2,000,000	손경아(기관 85)	2,000,000	이종민(의학 80)	1,000,000
김성은(제약 85)	2,000,000	손성혜(교육 64)	1,000,000	이현미(의직 85)	2,000,000
김순영(약학 62)	1,000,000	송영숙(법학 85)	2,000,000	이현주(섬예 83)	1,000,000
김애경(간호 85)	2,000,000	송은미(유교 85)	2,000,000	이혜원(식영 83)	1,000,000
김영실(국제사무 85)	2,000,000	신경미(유교 85)	1,000,000	이혜주(생명 85)	2,000,000
김영주(교육 71)	1,000,000	신경희(수교 77)	1,000,000	이호정(중문 87)	1,000,000
김영혜(불문 77)	2,000,000	신난식(성악 73)	2,000,000	이후정(영교 92)	2,000,000
김유겸(의직 70)	1,000,000	신은옥(초교 74)	2,000,000	임산희(유교 81)	1,000,000
김은주(특교 85)	2,000,000	신지선(영교 91)	1,000,000	임혜준(제약 83)	1,000,000
김인경(장미 85)	2,000,000	심기종(교육 65)	1,000,000	장근주(작곡 85)	2,000,000
김자혜(사회 74)	2,000,000	안영호(중문 85)	3,000,000	장영은(불문 83)	1,000,000
김정아(컴퓨터 85)	2,000,000	안인희(교육 49)	2,000,000	장은선(약학 85)	2,000,000
김진향(간호 73)	1,000,000	양미희(문정 85)	2,000,000	장태옥(유교 87)	1,000,000
김태임(의학 74)	1,000,000	양세정(전자공학 01)	1,000,000	전병숙(약학 70)	2,000,000
김행선(법학 84)	1,000,000	양소영(법학 93)	2,000,000	전선헤(체육 83)	1,000,000
김향숙(유교 85)	1,000,000	양수화(교대원 74)	1,000,000	전재성(외교 83)	1,000,000
김혜신(수학 85)	2,000,000	양영실(유교 71)	2,000,000	정경미(서양 85)	2,000,000
김혜영(식영 84)	1,000,000	양정진(컴퓨터 85)	1,000,000	정구임(도예 85)	2,000,000
남덕자(영문 73)	1,000,000	오숙영(사회 77)	1,000,000	정대련(교육 82)	2,000,000
남상택(물리 74)	1,000,000	유경희(과교 83)	1,000,000	정미경(의학 85)	2,000,000
남정희(과교 85)	2,000,000	유인숙(특교 76)	2,000,000	정부희(영교 85)	2,000,000
노 용(생미 72)	1,000,000	윤순희(교육 65)	1,000,000	정용희(약학 75)	2,000,000
류지후(유교 63)	100,000	윤혜규(유교 85)	1,000,000	정은숙(의학 84)	1,000,000
문 희(약학 59)	1,000,000	윤혜화(영교 80)	1,300,000	정재정(불문 85)	2,000,000
민경민(도예 86)	1,000,000	이강성(영교 89)	1,000,000	정조인(식영 83)	1,000,000
박경실(체육 78)	1,000,000	이계희(사회교육 56입)	1,000,000	정주자(유교 62)	400,000
박로사(피아노 85)	2,000,000	이기연(사복 85)	2,000,000	정준순(약학 72)	2,000,000
박상희(컴퓨터 85)	1,000,000	이나경(서양 77)	2,000,000	정호정(사회 83)	1,000,000
박신정(조소 85)	2,000,000	이난옥(교공 85)	2,000,000	조경원(교육 75)	1,000,000
박애영(수교 80)	1,000,000	이만령(체육 85)	2,000,000	조영주(도예 86)	1,000,000

조인섭(법학 99)	1,000,000	최경식(특교 75)	1,000,000	한은주(특교 79)	1,000,000
조종남(의학 75)	1,000,000	최명자(경영 71)	1,000,000	허지은(관현 85)	1,000,000
조현정(종음 85)	3,000,000	최문경(경제 85)	2,000,000	홍임선(생명 60)	1,000,000
조현주(사회 85)	2,000,000	최연희(도예 86)	1,000,000	황경수(제약 88)	1,000,000
조혜영(컴퓨터 85)	1,000,000	최영희(영문 70)	2,000,000	황명순(정외 75)	1,000,000
주영아(심리 85)	2,000,000	최일숙(생미 85)	2,000,000	황미숙(사회교육 85)	2,000,000
채은미(외교 85)	2,000,000	한석희(수학 71)	1,000,000	황유정(정외 85)	2,000,000
채은주(독문 85)	2,500,000	한숙영(제약 79)	1,0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5.1~2015.12 (과·졸업연도 순)

2015년 총동창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창들께서 보내주신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승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납부자 명단 문의는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과학대학	서경자(69)	윤정옥(49) 13년분	박봉숙(63)	윤경숙(80)	조행자(64)	송향자(70)
문과	송호연(69)	윤정옥(49) 14년분	박인자(63)	이승희(80)	엄선경(67)	최영민(71)
이윤재(43)	신언임(69)	윤정옥(49) 15년분	엄윤성(63)	김기령(81)	이경혜(67)	현영은(71)
국어국문학과	유원화(69)	류수인(50)	유명자(63)	최경희(81)	이광자(67)	이계숙(72)
전상애(56)	정순자(71)	변언호(50)	양정자(64)	권성미(82)	김혜원(68)	차성은(72)
최정희(56)	홍선심(71)	권덕연(53)	문효덕(65)	양선주(82)	이원옥(68)	신정숙(74)
김영학(58)	정혜숙(73)	김순자(55)	정해원(65)	이영진(82)	홍미자(68)	유동신(74)
임인진(58)	최취수(73)	김승숙(55)	정해주(65)	임순희(82)	한수옥(69)	이정화(74)
강은전(59)	전신애(75)	백형진(55)	최계자(65)	박경애(83)	민혜경(71)	이 속(88)
한정숙(59)	한순미(75)	천영애(55)	최청규(65) 14년분	김미현(86)	오인순(72)	
김은자(60)	백영자(76)	최일연(55)	최청규(65) 15년분	이수경C(90)	장혜경(73)	기독교학과
손영자(60)	최미수(88)	김형식(56)	민강희(66)	김주희(92)	정광자(73)	전민혜(62)
김길옥(62)	진혜원(94)	곽경수(57)	김교숙(68)	설경아(93)	이윤옥(81)	전인순(64)
윤숙자(63)	박정빈(00)	김주연(57)	이영숙(68)	권은(95)	장영은(83)	김명화(65)
이춘지(63)	박혜성(08)	김춘삼(57)	이유경(68)	이정희(95)	김이숙(87)	신혜정(65)
나규자(64)	이수자	김경숙(58)	김수영(70)	권정아(96)	채 림(89)	이혜재(65)
박미해(64)	증어증문학과	남윤선(60)	김순희(70)	윤은용(96)	조성아(92)	김봉희(66)
유태일(64)	박재옥(60)	오경심(70)	최지연(96)	김수정(01)	이정자(66)	
유해일(64)	김도희(87)	유초선(60)	고경원(71)	김현이(03)	오주현(14)	장수자(66)
안정환(65)	이호정(87)	최영희(60)	김수연(71)	정슬기(05)	김수현(15)	김미순(75)
유정자(65)	김진경(92)	최화형(60)	박채옥(74)	공현아(06)	임영주(97)	
윤수영(65)	범은정(93)	공경원(61)	이명숙(74)	이지은(09)	독어독문학과	
신효재(66)	이미류(06)	김영순(61)	이영옥A(74)	현솔잎(09)	이금숙(65)	철학과
이혜숙(66)	이한나(08)	유승옥(61)	백혜현(75)	전재은(15)	민용자(67)	엄소연(83)
정준선(66)	박현선	박남향(62)	이계호(76)	김희자	오영란(67)	박수영(93)
박영숙(67)	영어영문학과	이기영(62)	김미량(77)		최옥주(67)	이소민(96)
임완숙(68)	권경숙(49)	이보원(62)	문영희(79)	불어불문학과	이숙경(68)	김지영(15)
		조규춘(62)	이해남(79)	윤용범(64)	이정순(68)	

사학과	정소영	이효원(69) 민순기(70) 박준호(70)	진지선(14) 이순현(15)	김세명(62) 이름미상(63) 양영자(65)	구정연(12) 박여울(14)	김도아(15)
박경하(60)						
손경수(60)	행정학과					성악과
송은자(60)	임미희(96)	조임숙(70)	경제학과	양수경(67)	전자공학과	남옥우(60)
이은숙B(60)	손민경(05)	최진선(70)	장균주(89)	위경옥(68)	강태경(13)	이혜자B(65)
김학자(62)	김미리(14)	손귀덕(73)	최신숙(10)	이인희(70)		석정자(67)
남상훈(62)	공진영(15)	김난숙(74)	박재경(15)	심송영(73)	환경·식품공학	왕아자(67)
한용옥(62)	이유빈(15)	김자혜(74)	박성원(15)	안소영(73)	하빛나(08)	천인숙(82)
노수자(64)		문명재(77)		박세주(75)	김효진(15)	김은주(83)
김재향(67)	문화정보학과	김은미(81)	자연과학대학	김정원(76)		석혜원(94)
서정임(68)	유소영(65)	황성희(81)	수학과	금홍연(79)	건축학과	김연(01)
오영옥(68)	유애저(65)	이재완(84)	이기호(59)	박명옥(81)	강유림(02)	김한라(07)
오옥환(68)	홍승진(65)	최경세(07)	윤연상(62)	황복기(83)	정민(15)	김소이(15)
임지향(68)	황의자(67)		장상(62)	성진희(85)		
민병서(71)	박영숙(68)	사회복지학과	남선일(64)	국현아(94)	음악대학	작곡과
장경원(75)	백봉희(70)	김현지(60)	신정수(65)	박효진(97)	음악과	김옥자(67)
김영완(81)	이주식(72)	이정숙(61)	김상기(69)	최선윤(97)	문병주(39)	김시애(75)
김광민(83)	윤소영(73)	최태순(62)	김영숙(70)	조소희(98)	윤복식(57)	이주희(75)
윤용로(84)	임필영(73)	김영자(66)	이숙자(73)	금지은(04)	주영희(57)	진영미(75)
한은미(87)	고광옥(81)	최재명(66)	한재욱(75)	최혜윤(07)	구경자(59)	송민경(02)
이영희(88)	정혜영(04)	김일숙(67)	박복자(76)	손금선(08)	김영미(65)	
박소정(14)		고순자(69)	조은희(81)		원현정(08)	종교음악과
김현지(15)	커뮤니케이션	장성순(72)	나세리(84)	생명과학과	홍아라(12)	방명주(73)
	미디어학부	민선미(76)	김경애(92)	노분조(58)		김명수(75)
사회과학대학	조선희(66)	박영애(79)	한진영(93)	이금석(59)	기악과	김지수(85)
정치외교학과	한명미(67)	김혜순(84)	박남호(97)	이정애(59)	윤연경(49)	
오명령(57)	임진희(69)	선윤정(95)	이수현(00)	류우(60)	주경순(61)	한국음악과
유한선(57)	박화숙(74)	신희주(97)	박나영(08)	최순경(60)	최승현(63)	이명숙(81)
최명숙(57)	연일선(75)	정유선(02)	최윤정(12)	홍임선(60)	황경현(63)	곽은아(85)
윤혜자(59)	유영선(75)	최혜림(05)		강래화(61)	윤미재(65)	이혜구(92)
우행자(69)	홍귀정(83)		통계학과	서영숙(61)	안미자(66)	이정선(94)
김영희(70)	김혜진(86)	심리학과	박소희(06)	정은자(61)	방명혜(67)	권인옥(95)
백영옥(70)	조희수(86)	박경숙(57)		차영순(63)	박미애(68)	박슬기(06)
서염미(70)	주보경(90)	황혜자(57)	물리학과	이혜숙(67)	최영진(68)	김찬미(12)
서정희(70)	박내선(00)	백남희(59)	정경옥(63)	윤영애(68)	나효선(70)	
이양준(70)	이혜범(05)	오봉립(61)	김경자(68)	조애현(74)		조형예술대학
이연표(70)	노은미(07)	유남숙(62)	김영선(68)	함천경(77)	피아노과	미술과
이혜련(70)	최수영(11)	이운주(63)	손종수(72)	장선미(07)	조영숙(53)	이효범(61)
조백련(70)	이혜경(13)	차정자(65)	최소영(84)	이름미상(07)	양경희(80)	
조복선(70)		계명의(66)	박인진(02)	조가현(09)	이혜영(83)	동양화과
하정희(70)	사회학과	김행숙(66)	조주원(04)	이지향(10)	백형자(87)	이채언(70)
이명옥(71)	윤연주(62)	송숙희(74)	류승희(06)	김지윤(12)	우숙영(87)	강미연(74)
남성희(74)	장의순(62)	조상옥(76)		이미경(13)	조한솔(15)	문예(75)
차지원(07)	여증녀(63)	김영주(81)	화학과	박주연(15)		박인숙(78)
이은별(09)	이안자(64)	이미화(81)	박원경(56)		관현악과	곽은숙(86)
왕수안(12)	최용소(65)	이동길(89)	강영옥(60)	공과대학	이순자(59)	
윤흥선(14)	정행자(66)	이현승(93)	김정남(60)	컴퓨터공학과	배종선(90)	서양화과
이지윤(15)	유혜숙(69)	김선영(09)	김종은(60)	강주영(98)	김자영(03)	최구자(65)

이선희(67)	박구미(92)	김금순(56)	이정애(13)	김영숙(69)	과학교육과	주미대(65)
강승애(72)	이연희(92)	김수은(56)	김승하(15)	최종숙(72)	송옥자(66)	차명희(66)
김효정(77)	유미나(96)	김애자(56)	김은혜(15)	이현정B(74)	송신자(67)	김신자(67)
김회산(79)		조병주(56)	추지윤(15)	안경숙(78)	이순자(67)	한지숙(67)
김선주(89)	도예과	최영숙(56)		이영옥(78)	곽혜경(68)	박현숙(69)
권정은(91)	박유나(81)	임명숙(57)	유아교육과	이미옥(79)	한태화(68)	윤혜숙(70)
서선아(94)	안희정(85)	권유봉(58)	유근희(61)	강혜숙(80)	주영미(72)	최양숙(70)
위한별(14)	남연숙(86)	정갑순(58)	홍정자(61)	윤혜화(80)	박현경(81)	박관순(72)
	황영미(07)	권봉선(59)	류지후(63)	민혜정(81)	윤리나(85)	이승주(73)
조소과	나장은(13)	김성욱(59)	정명자(68)	김아형(06)	최경희(85)	조근배(77)
김정숙(71)		김은산(59)	김신재(71)	이미진(07)	김송주(92)	홍수경(77)
심인자(74)	체육대학	김춘심(59)	조한수(71)		최문희(92)	문미란(80)
강신애(78)	체육학과	심재완(59)	이상희(72)	외국어교육과	전희성(93)	권순교(85)
이혜경(78)	조성환(49)	한임순(59)	문경숙(74)	이혜완(69)	박균하(94)	이명숙(86)
	방봉세(51)	강금순(60)	송은미(85)	이혜영(81)	문영주(98)	남윤희(87)
섬유예술과	김정자(56)	권혜숙(61)	유청옥(88)	전혜준(87)	임현주(07)	최희경(90)
신지원(61)	이성여(65)	김영희(61)	장문정(94)			공지영(94)
최희경(65)	김혜자(66)	노공근(61)	최혜림(06)	사회과교육과		박귀천(95)
변정현(67)	정명대(66)	문완희(61)		김형경(56)	문봉선(76)	박현주(99)
노정자(68)	최병화(66)	오춘란(61)	초등교육과	이영희(58)	심홍임(76)	김영주(03)
박광혜(68)	최춘자(66)	장경희(61)	이행자(65)	서금숙(59)	김정열(80)	송은지(06)
조정자(68)	고선혜(67)	박덕순(63)	정미자(65)	최용혁(60)	반진윤(83)	김미루(09)
김경희(69)	전성자(67)	백영자(63)	안정세(69)	이계희(56입)	이경아(95)	노숙영(09)
임정미(74)	이정자(68)	이정옥(63)	이인숙(70)	김형자(61)	이정옥(98)	정지은(09)
홍은표(74)	문규순(70)	강영은(65)	홍선란(74)	박옥련(61)	나선경(14)	신영지(10)
손경숙(80)	문현수(70)	김광자(65)	조을순(75)	이선희(61)		김민재(12)
봉지희(85)	김은희(72)	김수홍(65)	염미봉(77)	조연수(61)	보건교육과	정우정(12)
이귀숙(85)	문진수(72)	심기종(65)	박정서(81)	최인숙(61)	김정연(69)	박정빈(13)
정학용(85)	이영란(76)	윤순희(65)	이혜경(83)	홍승인(61)	장점숙(69)	신지원(14)
송정수(89)	김재영(89)	원지영(67)	구순옥(85)	강혜온(63)	조수열(71)	
손정연(93)	송은희(89)	고명희(68)	김미숙(85)	이미경(63)	지미숙(72)	경영대학
정윤선(93)	이영림(89)	김신지(68)		조청자(63)	이주순(73)	경영학과
김연재(94)	이윤숙(94)	박영자(68)	교육공학과	박옥연(65)	임찬희(78)	김옥순(69)
김가영(12)	하희라(15)	박정수(68)	노정숙(74)	양인숙(66)	전혜선(82)	이영애(69)
		신명자(68)	신경인(75)	최영자(66)	김수현(03)	박영숙(74)
생활미술과	무용과	우소학(68)	하경옥(77)	최금순(67)	장문영(14)	정증자(74)
김명임(63)	김정수(70)	이재옥(68)	박효숙(84)	성봉기(68)	허민(14)	김영선(78)
이영자(64)	조수형(70)	장예순(68)	이름미상(95)	함인숙(69)		전혜경(80)
문화자(67)	손경순(77)	정경희(68)		김숙자(70)	법과대학	문수정(84)
이민정(67)	조은정(94)	김임순(70)	특수교육과	민태희(70)	법학과	정혜선(89)
조창연(67)	김윤진(96)	김영주(71)	박애영(75)	박영주(70)	윤명열(60)	김반지(91)
김미자(70)	박진덕(07)	김명희(73)	한은주(79)	이연희(75)	정해경(60)	두진경(93)
이주형(80)		김여옥(74)	박은해(80)	부은령(81)	이홍배(61)	윤귀염(94)
이채근(84)	사범대학	채문숙(74)	최주희(82)	서경애(84)	김송자(64)	홍성희(94)
	교육학과	서성필(75)	김은경(87)	한복희(89)	김미자(65)	구성원(95)
장식미술과	정일례(50)	임현숙(75)	신미경(06)	윤홍경(03)	김용자(65)	최유진(01)
김은영(84)	호재숙(49입)	정미경(79)		이우진(14)	민명자(65)	육명희(12)
권순임(91)	사지숙(55)	박영숙(81)	영어교육과		유희숙(65)	오윤진(14)

황정원(14)	김효신(84)	김진숙(58)	정영자(65)	제약학과	서태선(75)	김이수(12)
문수정	이승희(84)	문예자(58)	김명자(66)	이순이(71)	임정희(79)	변혜진(14)
	정은숙(84)	구영순(59)	박해영(66)	황인덕(74)	지영서(80)	노나예(15)
국제사무학과	최은진(88)	구자옥(59)	이강희(66)	오용순(75)	김연경(84)	이현경
조계숙(73)	정성애(91)	김○○(59)	강원자(67)	강옥수(76)	윤지은(89)	
임은식(81)	배기선(99)	문희(59)	김진애(67)	전영옥(76)	노남숙(92)	대학원
이미애(89)	태정현(05)	민병옥(59)	황혜자(67)	김희수(81)	한세영(94)	김희성(84)
이소진(97)	조연실(06)	박정애(59)	김경자(68)	한숙영(83)	황빈아(07)	김영은(12)
	박명숙	윤혜숙(59)	김초원(68)	황경수(88)	서진(09)	김영자(13)
의과대학		이옥순(59)	박순례(68)	조서희(96)		문화경(13)
의학과	간호대학	임영식(59)	오세종(68)	서은영(99)	의류직물학과	박정례(13)
박숙정(51)	간호학과	황동수(59)	장경희(68)		박윤정(55)	이화진
김순희(59)	최옥희(56)	고순환(60)	장인순(68)	생활환경대학	유춘미(68)	
강옥련(60)	김명순(62)	김보근(60)	전명숙(68)	가사·가정과	이명숙(75)	교육대학원
이혜경(60)	남상옥(62)	김형례(60)	김덕길(69)	백명진(44)	장경선(75)	양수화(74)
차순자(60)	오나미혜(64)	문순이(60)	김일희(69)	정순희(53)	우미형(77)	최예진(15)
이종원(61)	김진향(73)	이주화(60)	박성숙(69)	권정숙(56)	최비숙(80)	한지원
이창학(61)	조순옥(74)	장현숙(60)	이위영(69)	이신덕(57)	홍혜진(80)	
최혜옥(62)	유병국(75)	최혜경(60)	문경재(70)	김선영(59)	유정희(83)	정책과학대학원
김종남(63)	이희숙(81)	한영숙(60)	박노신(70)	김형복(59)	김정화(96)	오우경(05)
우복희(63)	변은경(83)	허경순(60)	신옥희(70)	김혜자(60)	곽경희(00)	전혜성(08)
이현숙(64)	김미영(84)	황명순(60)	전병숙(70)	양여순(60)	조아름(09)	최영은(08)
조성인(64)	윤희정(90)	고경희(61)	박정아(71)	이선종(60)	한혜리(09)	
오양자(65)	배경의(95)	고화영(61)	고명순(72)	전은수(60)		외국어교육
강민자(67)	최혜은(98)	김덕희(61)	백창희(72)	박준교(61)	식품영양학과	특수대학원
이규현(68)	차진영(00)	김순자(61)	정준순(72)	윤경숙(61)	윤정환(49)	박희령(15)
김명세(69)	김지연(07)	김옥녀(61)	위성숙(73)	이름미상(61)	박종오(58)	
윤정혜(71)	손지희(12)	민영례(61)	임형순(73)	김효영(63)	계명혜(63)	신학대학원
박숙자(72)		윤용봉(61)	황선례(73)	박영혜(63)	한형옥(68)	박경천(04)
이영희B(73)	약학대학	이은실(61)	김유현(75)	박혜경(63)	구소원(69)	천미영(14)
손순옥(74)	약학과	이혜숙(61)	우진향(75)	배옥재(63)	이선옥(69)	
유경화(74)	문은선(49)	전숙희(61)	정용희(75)	이영예(63)	우정애(70)	평생교육원
최금자(74)	장재옥(49)	정예경(61)	김정옥(76)	윤송자(64)	최은림(71)	강옥채
이경자(75)	이항구(50)	허순영(61)	박민희(77)	장민영(65)	이름미상(71)	박혜남
이덕용(75)	김경원(51)	황한선(61)	손무인(78)	박정자A(65)	박경임(73)	
조종남(75)	신경희(51)	김순영(62)	김영미(79)	윤춘자(66)	김광옥(75)	학과·년도 미상
장애인(76)	임희숙(51)	김영순(62)	민명수(79)	이갑희(66)	최수주(75)	강명자
황임령(76)	전예실(51)	차영화(63)	박희정(79)	전영자(66)	고영미(83)	강정옥
김정혜(77)	최귀파(51)	허옥자(63)	이미애(79)	박순자(67)	김경희(83)	고순주
이용주(77)	옥선옥(54)	구신자(64)	최길자(79)	장영희(67)	원은영(83)	고혜선
오혜숙(78)	오춘환(55)	김기방(64)	최경석(81)	김길자(68)	이혜원(83)	구정숙
오○○(78)	김원숙(57)	김송윤(64)	최순경(81)	김혜영B(68)	정조인(83)	김문자
이순남(78)	도정애(57)	김정경(64)	지선옥(83)	배계현(68)	송향희(87)	김미령
이진숙(78)	이무경(57)	백정자(64)	정영주(97)		이윤경(90)	김미애
최신영(80)	전재선(57)	송추자(64)	권진현(05)	가정관리학과	전은영(09)	김성숙
현민숙(81)	최규영(57)	이정혜(64)	오상미(05)	이재희(69)		김수희
현영화(81)	허인전(57)	정태연(64)	서희원(10)	이름미상(69)	국제학부	김양숙
임선영(82)	홍정옥(57)	홍경자(64)	이경재	김현숙(73)	국제학과	김영숙

김예린	조선영	유재신(생명 59)	북텍사스	구덕자(의학 69)
김옥성	조영주	이순례(수학 59)	337,000원	정태영(미술 69)
김은경	조정자	김영원(피아노 61)		고정희(장미 74)
김의정	최금자	국혜원(사학 62)	브라질	최순희(사학 78)
김임순	최선희	조덕이(생명 63)	500,000원	백선미(체대 80)
김정명	최영숙	이주자(사생 67)	세인트루이스	손영란(법학 80)
김종옥	최영희	박숙희(교공 70)	412,400원	신주리(미대 81)
김태미	최윤성	안명옥(심리 70)		김덕희(미대 90)
김혜연	최정진	이전숙(의직 70)	시애틀	박경란(무용 90)
노경혜	최혜린	기영석(국제사무 73)	578,500원	이목미(유교 93)
노용	허은주	손숙희(작곡 73)		성민영(수학 95)
류하정	현민숙	오경안(심리 73)	신시내티	임혜선(영교 98)
문현지	홍영자	심창교(물리 75)	336,727원	
박숙자		정혜숙(영문 77)	도미용(약학 56)	자카르타
박신애	기타 이름미상	이옥현(피아노 82)	김영채(영문 59)	229,600원
박옥연	(51명)	정순임(식영 85)	김진희(기악 68)	
박지은		최희윤(불문 85)	김혜선(외교 69)	클리블랜드
박현주	국내지회	나수영(의직 86)	배영자(신방 69)	400,000원
박혜숙	대구	정향숙(사복 86)	이현숙(간호 69)	
백경진	600,000원	이선진(전산 87)	황은신(생미 70)	토론토(14년분)
백설		강진아(중문 95)	강순명(약학 71)	475,000원
백인숙	순천		하현숙(법학 71)	토론토(15년분)
서연경	630,000원	해외지회	변혜경(조소 73)	554,300원
서예린	김연자(가정 59)	내슈빌		
송기정	강초례(가정 63)	228,294원	싱가포르(14년분)	홍콩
신상희	조정자(국문 63)		900,000원	1,883,400원
신소희	조영숙(화학 67)	뉴욕(14,15년분)	싱가포르(15년분)	방혜자(교육 66) HKD3,000
안효진	김경인(동양 74)	1,081,992원	900,000원	이명희(무용 68) HKD2,000
예경혜	홍선란(교육 74)			최명성(교공 76) HKD200
오영란	유종희(사학 75)	독일	애틀랜타	김성희(피아노 81) HKD200
유효정	고명선(영문 76)	824,323원	1,157,000원	임미도(관현 81) HKD200
윤순명	박금희(물리 76)			정도경(사복 81) HKD5,000
윤영숙	최영자(사회 77)	로마	에드먼턴	김영주(신방 88) HKD200
윤혜원	김명석(작곡 79)	188,000원	175,600원	문은명(조소 89) HKD200
이미나	나연희(경영 79)			정경화(관현 90) HKD200
이미화	황경숙(체육 79)	몬트리올	오레곤	한유미(보교 90) HKD200
이선숙	서혜석(영문 81)	209,042원	1,063,703원	문지영(전산 94) HKD200
이승미	유숙영(법학 85)	김순일(의학)		이희연(관현 94) HKD200
이영애	윤지연(간호 85)	박복길(교육 60)	올랜도	한정화(섬예 94) HKD200
이정희	고선영(불교 86)	박정자(화학 62)	393,552원	박현희(정외 98) HKD200
이풍자	최정순(신방 87)	김광주(교육 67)		송수희(신방 98) HKD200
이혜원	신경화(조소 88)	민경희(경영 68)	일본	이재명(신방 98) HKD200
전경숙	김수진(경영 91)	이채화(무용 76)	510,000원	조혜지(정외 98) HKD200
정동옥	이유진(섬예 95)	백희준(수학 84)	강연숙(가정 53)	홍혜연(불문 99) HKD200
정세정		김명원(수학 92)	김명화(음대 63)	김희선(섬예 01) HKD200
정연수	전주		박혜자(가정 63)	
정유미	660,000원	북가주	정정자(신방 65)	
정재숙	차인자(영문 50)	578,500원	김용원(문정 67)	

한국일보

HANKOOKILBO.COM



공존 · 통합 · 사람

행복한 세상이야기를
담아내는 중도언론

나의 한국일보

“나의 한국일보는 즐거움이다”



한국일보는 국내 유일의 중도 정론지로서 창간 이래 어떤 정파와 이념에도 휘둘리지 않고 사회의 균형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갈등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곧게 제시하는 공존과 통합의 조정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뉴스와 콘텐츠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배려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생각과 위치가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견이 수렴되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될 수 있는 사회, 그럼으로써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구독신청 안내 02) 724-2715



www.hankookilbo.com



hkilbo



hankookilbo

| 해외 현지법인 자산/순이익 시중은행 1위 |

신한은행의 시계는 세계로 간다



글로벌과 더 가까이, 현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한은행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합니다
신한은행의 내일은 World Class Bank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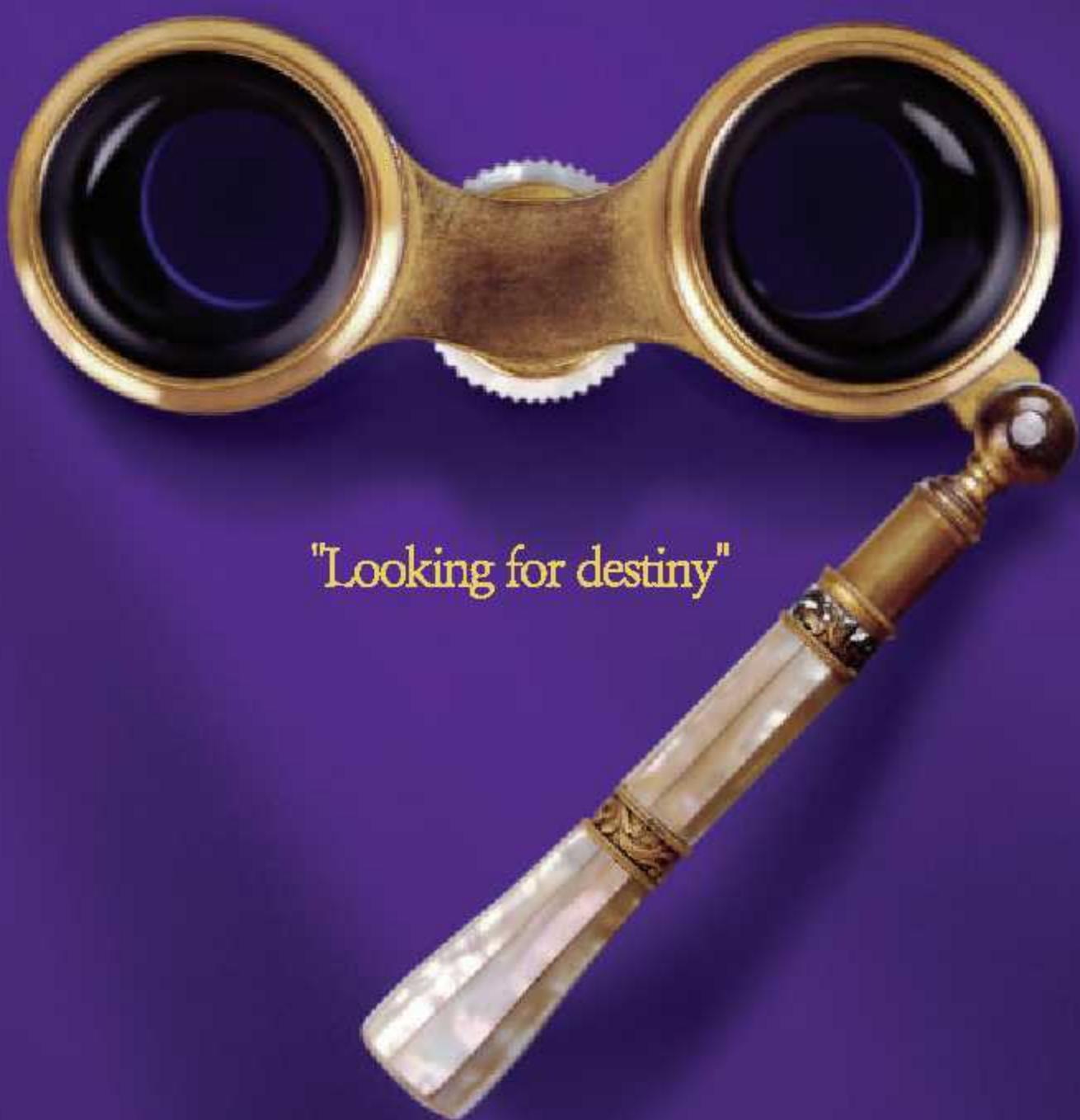
해외 현지법인
자산/순이익 시중은행 1위
2014년 연결감사 보고서 기준
(연결대상 해외 현지법인)

해외 현지화 자수
국내 금융기관 중 1위
2014년 금감원 은행혁신성 평가 해외전출부문
(현지직원비율 현지고객비율 1등급 기준)

차별적 현지화를 통한
아시아금융벨트 구축
일본, 중국 등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경제성장국에 이르는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행

신한은행



"Looking for destiny"

참 한결같은 S노블.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증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